東大新聞

제1105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9월16일 (수요일) 【 1 】

발행인 민병천
편집인겸주간 차수련
편집국장 안재봉
편집장 이병민

펴낸 곳: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今週一言

백수 장수한다고 자랑하여도 삿된 도를 배우고 뜻이 좋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정진을 하며 바른법을 받든것만 못하느니라.
〈法句經·교학품 17절〉

◇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점검한다

총운위 표류…중앙정책 부재

이견의 폭 해소통한 단위사업 추진시급

제24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학내 각단위 학생회의 사업은 중심축을 상실한채 진행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방중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오류의 극복이 채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2학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양상은 대중성을 확보하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개강초부터 전개돼온 총동입회비에 대한 운영위의 입장이 양분된 가운데 지속적인 논의의 틀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학생회 사업의 오류로 지적될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 총학운영위의 한 주체는 "학생회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후 하반기 정세분석, 대선시기 학생운동의 대응방침을 비롯한 학자사업의 원활한 매개점의 확보는 운영위의 논의속에서 풀어야 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총학운영위가 지난 8월말이후 중단상태에서 다시 소집되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은 △백상체전에 대한 각단위별 준비사업 검토 △'폭풍전야'에 대한 추진보고 △총동입회비 부활에 대한 향후 투쟁전개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기본적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학운영위가 해결짓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는 연장선으로 되고 말았다. 이상태에서 총학운영위는 실질적인 논의의 결과물을 내오지 못했다.

한편 각 단위 학생회는 중앙에서 마련되어야 할 정책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의 활발한 전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과학생회에 이르는 학생회의 폭넓은 위상설정이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하는 원인은 학생회운영의 원칙과 방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학기 학생회 사업의 큰 기류를 형성하는 백상체전의 다양한 사업준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행정학과에서 발생한 교수채용상의 문제를 중앙정책단위에서 정확히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의 사업전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적절한 지침의 설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기다. 이외에도 개강초부터 전개해온 총동입회비 부활에 대한 학교당국의 성실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내야 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총학운영위의 실질적인 정상화가 없는 상태에서 2학기 학생회사업의 움직임은 향후 학생회장화에 역행하는 오류점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제주체는 각인하면서 분발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총학운영위가 열렸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되지 못했다.

대책위, 총동문제 해결 촉구

2학기 수납된 총동입회비 환불

'총동입회비 불법유출·횡령 규탄및 제2기 자주학원 건설선포식'이 중앙대책위 주최로 지난 8일 학생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지금까지의 경과보고, 불법유용규탄, 협상대표 결과보고 및 이후 투쟁방향 순으로 이어졌다.

협상대표 결과보고를 통해 대책위는 3개항에 이르는 학교당국과의 협의내용을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은 △92년도 2학기 수납된 총동입회비의 환불조치 △88년 총동입회비 지급동결액의 불법유출은 원칙적 환수 △환수된 총동입회비의 사용은 장학재단구성을 통한 장학사업 추진 등이다.

하지만 학교당국과 실질적으로 합의된 92년 2학기 총동입회비의 환불이외에는 총동창회로 유출된 지급동결액의 환수는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즉 환수부분에 대해서 학교당국은 총동창회와의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은 정할수 없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한편 학교당국과 합의가 확정된 92년 2학기 총동입회비의 환불은 오는 28일부터 10월2일까지 개인적으로 환불처리된다.

——알 림——

이번호(제1105호)부터 보리수필자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대학신문 제작중지 사태 잇달아

'이원화 조치'로 편집권 침해

대학신문에 대한 편집지율권의 당국침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신문연합차원의 강고한 연대의 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학기에 접어들면서 서강대 서강학보를 필두로 전개되고 있는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은 한성대, 이대, 명지대신문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학신문의 탄압양상을 보면, 서강학보가 학생기자들이 배제된채 주간교수단독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언론사 운영위와의 연대의 틀속에서 학교당국의 대학신문탄압에 대한 대응으로 '서강학보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등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서강학보기자들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주간교수 단독신문 철회 △조속한 학보제작 정상화 △편집권의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학교측에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확답이 없는 상태다. 이에 오늘(16일) 총학운영위와 언론사운영위는 공동논의의 자리를 갖고 요구사항이 수용될때까지 운영위차원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한성대신문의 경우 지난 8월4일 주간교수가 △교수들로 구성된 논설위원만이 사설집필 가능 △논설위원이 신문제작, 지도 △의무원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사칙개정안을 강요해 개강호이후 현재까지 제작중지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이외에도 주간교수는 학점조항, 수습기자 선발권, 신문제작 O·K권, 배포권에 이르는 신문제작의 전반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신문제작은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대학신문의 제작중지사태에 서대기련의 한 관계자는 "12월 대선공간을 앞두고 대학신문탄압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이의 극복방안으로 기자들간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위사는 학생회, 직원노조차원의 연대를 통해 대학신문 이원화조치의 본질을 널리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행과 신규교수채용 파문

해당교수 수강거부로 난항거듭

2학기 경찰행정학과 신규교수 채용과정에서 임용후보들간의 갈등으로 말썽이 빚어져 과내 학생들과 경행과 출신동문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교수채용 심사기준의 하나인 연구업적 평가중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각 25점 만점으로 논문은 공인된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나 학위논문(3년이내에 발표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것은 이모박사의 심사논문이 '한국공안행정학회'회보 창간호(91년 12월)를 을 3월에 재 발간하면서 애초에 없던 자신의 논문을 추가로 게재, 연구업적으로 제출해 상대편후보가 이박사의 학자적 도덕성시비를 H일간지에 제보함으로써 일반에 여론화된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경행과 학생회(학생회장=황기태4)는 지난 4일 대자보를 통해 양측 교수 2인과 학과교수4인, 과학생전원이 참석해 이번 사건에 한해 해명과 물의를 일으킨 양 교수의 공개사과, 학과장인 서재근교수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교수들에 대한 수강거부방침을 확고히 했다.

반면 이번 신규교수채용에 관여한 서재근교수의 3명의 교수는 "이번 논문이 수정, 보완등의 작업이 덜된상태의 논문이 좀 늦게 수록된 사실을 조작이라고는 보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경행과 학생들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과 교수들 간의 인맥관계 비정상적 신규교수채용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학과의 대내외적 명예실추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번 사건해결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 간담회의 개최와 학과 교수들이 성의있는 답변내용을 가지고 간담회에 응할것"등을 주장했다.

社 告

제30회 학술상 작품 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알찬 수확을 거둬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사회과학상 :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자연과학상 : 본상 및 가작(본상 25만원, 가작 20만원)

◇응모요령
원고매수 :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학과의 학술논문에 한함)
응모자격 :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 本社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논문제출 : 1992년 10월 4일~7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입상작 발표 : 1992년10월 27일字 本紙 紙上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02) 260-3491·2

동대신문사

보리수

사람의 말은 그 속에 인격과 사상을 담고 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을 표상한다. 따라서 언제 어느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만을 골라해야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교묘한 말이 어진 것만 같지 못하다'는 공자의 말처럼 겉만 번지르하고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가증스런 말도 없다. 진실을 가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교언(巧言)은 재앙과 갈등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진실을 가장한 헛소리 때문에 또 한번 큰 재앙을 경험하고 있다. 종말이 다 됐으니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는 다미선교회의 종말론이 그것이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몇마디를 과학적(?)으로 해석해 1992년 10월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적지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과 학교, 직장을 버리게 하고 광신적 기도와 전도전선에 내몰고 있다.

정통을 자처하는 교회에서는 이를 가리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단'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기독교 자체가 종말론을 중요한 교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다시 이런 해괴한 일이 생기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그런가하면 또 어떤 교회의 목표는 이른바 '세계성령화대회'집회에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기독교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국회의사당에도 성령으로 가득찬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 말썽이다. 아무리 교인들만 모인 자리라지만 공개된 대중집회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은 망언(妄言)에 지나지 않는다.

종말론이든 기독교국론이든 그런 발상은 무엇이 아니면 안된다는 일종의 편집증에 사로잡힌 것이다. 때문에 그런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문제는 그런 말로 인해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갈등구조를 심화시킨다는데 있다. 옛스님이 구시화문(口是禍門), 즉 입이 모든 재앙의 문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싶다.

어느날 외출을 나갔다 들어온 부처님은 잡담으로 떠들썩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타이른 적이 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진리에 관한 말(法談)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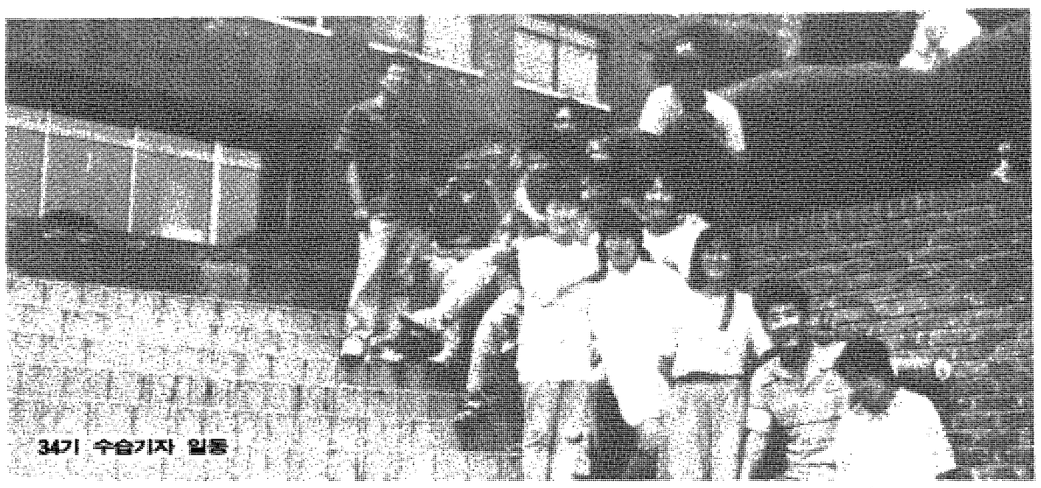
이 말씀은 말의 홍수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이다.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속이거나 이간질하거나 험한 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일이다.

洪 思 誠

말과 침묵

대학생활엔
시간이 많다는데…
도무지
하루 24시간은 짧다.
수업도 들어야 하고
취재도 해야 하고
기사작성도 해야 하는데
……
일주일에 한번
신문을 만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기사마감 시간,
내 구겨지고 찢긴 원고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수업과 취재, 그리고
작지만 내생활을 챙기며
하루를 보낸다.
빠듯한 하루 일정에도
넉넉한 여유가 있다.
때론
"바빠보여 좋다"는 친구의 말을
의심해 보기도 한다.
하루
25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2만 동국인의 귀가 되고자
오늘도
출입처에서 버벅되는
우리 수습들에겐
하루
24시간은 너무도 짧다.

"하루 25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34기 수습기자 일동

수습기자 추가모집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 서울 ○명
②응시자격 : 서울캠퍼스1학년남·여재학생(92학번)
③모집분야 : 일반 및 사진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⑤원서접수 : 9월23일(수) 오후4시까지
⑥시험일자 : 9월24일(목) 오후5시
⑦시험과목 : 1차필기-상식·작문(단,사진기자 응시자는 1차 실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東大新聞社

학생 자가용,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자발적 통행금지로 '범동악 넓게 쓰기 운동' 필요

그동안 다른학교의 일쯤으로 나 여겨졌던 상황들이 우리학교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8월 24일 만해광장앞 내리막길에서 야간강좌 영문과 여학우 2명이 체육교육과 어느 여학우가 몰던 소나타승용차에 받히는 교통사고가 났던 것이다. 다행히 주위에 있던 학우들에 의해 곧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그중 한명은 엉덩이 윗부분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장기간의 병원신세와 심각한 후유증까지 염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일로 휴학까지 하게 되었다니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 아니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차량만으로도 비좁은 학교공간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학생들이 여기저기 세워놓은 차로 휴식공간은 더욱 비좁아졌고, 교정에서의 서행표시판이 무색하리만큼 달리는 차들…. 동악 일만학우라면 누구나 공감했을 이런 상황들에 혹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만성화된 관행쯤으로나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학생들의 자가용등교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또, 우리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다.

학교측에서도 심각한 주차난과 비좁은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해소할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아르바이트학생들을 고용해 정문 차량통제를 해왔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안다. 주차스티커를 칼라복사해 버젓이 붙이고 다닌다거나 아예 차량통제하기전에 들어와 버린다는 것이다.

학생자가용등교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때문에 자제해야된다는 주장은 이제 더이상 설득력이 없을것 같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위화감을 넘어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이다. 즉 이러한 차이는 동국인이라는 공동체의식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갈수록 늘어나는 주차문제에 따른 고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학생회차원의 조직적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언젠가 한 학우가 말했던, 범동악차원 동악사랑의 일환으로 동악넓게 쓰기운동을 벌이자는 그말이 문득 머리에 스친다.

박 종 양
〈문과대 철학과〉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260-3491·2.

도서관 책 분실 사건 사라져야

그 학교의 면학열을 느끼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쉽게 체험할수가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이나 개인의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공부하는 학우를 시기하는 행동도 아니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책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학우의 책을 범하는 극단적인 경우이거나 단순히 유흥비부족을 채우기 위한 경우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순수 열정으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최고의 지성인을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행동은 동악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도서관의 환경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면학에 힘쓰는 우리의 학우들에게 무언의 격려를 보내지는 못할 망정 면학 분위기를 탁하게 하는 이런 행동은 진정한 동악인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겐 아직 젊다는 이유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앞으로의 희망찬 내일을 계획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인해 자신의 순수한 양심과 젊음을 물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큰 것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동악이 보다 힘차게 전진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두의 힘과 서로가 주변의 학우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지금 바로 필요한 때이다.

김 정 영 〈사회대 정외과〉

정부실정 폭로투쟁 전개할 것

얼마전, 충북 연기군수였던 한준수씨에 의해 지난 14代총선에서 관권이 개입되었음이 폭로되었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 확실한 근거와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대중들은 관권선거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와 검찰은 단순히 도지사 정도를 처벌하는 선에서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근본적인 치유와 처벌보다는 '지자제 실시'라는 협상도구로 이용하면서 대권 놀음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운동권 또한 이에 대한 어떤 올바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중 대통령 추대를 위한 서울지역 학생추진위원회' 학우 50여명(동국대 12명 포함)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 투쟁을 약 두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이번 투쟁은 오래전부터 대중들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던 관권·부정 선거의 폭로를 통해 신행주대교 붕괴를 초래한 졸속행정,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정경유착등 현 행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폭로함으로써 대중들의 요구와 우리의 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일치되어야 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전국민적 항의와 투쟁을 수행할 것이며 민중의 고통과 요구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유 세 종
〈문과대 국문과〉

매체비평

한준수씨 양심선언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관권선거'폭로는 대선을 앞둔, 정국을 뒤흔들만한 중대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신문보도는 양심선언의 진위여부에 대한 정밀추적과 함께 단체장선거나 대선과의 관련성을 상세히 밝혀야 했으나 후반에 들어서야 모든 신문들이 주요기사로 취급하는 등 체면치레식 보도를 보였다.

축소와 외면으로 일관한 첫 보도태도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신문의 보도태도는 축소와 외면으로 일관한 것이었다. 첫 보도이후 각 신문은 양심선언의 파장과 검찰의 수사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

폭로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추적보도

한씨가 폭로한 사실은 관권선거가 전국에서 폭넓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됐음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가 23일로 다가온 점과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전례가 대부분 '늑장, 엉거주춤'수사였음을 감안하면 신문은 당연히 득자적인 추적보도를 전개해야 했다. 이같은 의무를 수행한 것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이었다. 동아일보는 양심선언이 있고 나자 곧장 기자를 현지로 급파, 대전지검과 민주당진상조사위의 결과를 면밀히 보도하는 한편 독자적인 취재로 병행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를 철저히 묵살, 심층취재는 하지 않은채 검찰의 움직임만을 '중계방송'식으로 보도했다.

단체장선거와의 관련성

한씨의 '관권선거'폭로를 단체장선거와 연결시켜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를 주장한 신문은 한겨레신문 뿐이었다. 한편 신문이 검찰과 선거관계자 뿐만 아니라 민자당 김영삼총재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신문은 한결같이 사설에서 김영삼총재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총재의 "진상조사, 관련자 엄중처벌" 발언을 다뤄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제2이동통신과 비슷한 '정치쇼'가 연출되는 조짐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보도다.

한준수씨 인신공격성 보도로 본질 흐려

조선, 중앙,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단체장선거의 당위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채 한씨의 행동에 의문을 표명하고 나서 본질을 흐리는 듯한 주장을 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신문비평모임>

사건초기 축소·외면으로 일관
민자당의 방침만을 보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낙산학사 전 관리소장 김 종 환(60세)씨

동해낙산학사(이하 수련장) 송림사이, 또 한그루의 소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김종환(60세) 할아버지.

지난 80년 임시건물이 있을 때부터 이곳 관리소장을 맡아 89년 2번의 위암수술을 받으면서까지 12년동안 수련장과 함께 한 '산 증인'이다.

매우 고집스럽고 엄격해 보이던 첫인상도, 부지구입 당시부터 수련장을 지을때까지의 사진 스크랩을 찬찬히 보여주면서 마치 동국의 역사 한조각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회상할때는 흡사 순진한 어린이의 표정이다.

할아버지는 지난 90년 건강때문에 셋째아들인 김광영(38세)씨에게 관리소장을 물려주었지만 버릇처럼 매일 이곳을 찾는다.

한편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즐겁게 뛰노는 것을 보면서 청소나 잔일을 하는 것이 어떤 취미생활보다 더 좋다고 한다. 앞으로 하고싶은 일이 있다면 연못가에 손수 만든 의자를 놓아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을 꾸미는 것이라고.

"영감쟁이 그만 물러나라 할때까지 계속 이일을 할꺼야"라고 뜻을 밝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예의 고집스런 표정이다.

〈박선경 기자〉

행정 편의를 위한 수강정정폐지는 곤란

최근 수강신청 정정의 문제로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을 겪은 학우들이 꽤 있을 것이다. 나도 그중 한사람으로서, 목적을 상실한 편의위주의 사무처리 문제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의 시정을 기대하며 글을 쓴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자유로이 학문과 진리를 하기 위함이 그 첫번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때, 대학의 행정처리는 최대한으로 불편없이, 그 주체들이 진정한 학문을 연마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강신청 정정이 제기되었던 목적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적 상황에서 모든 강좌를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강좌를 선택해 듣도록 하는것으로 안다. 그러나 단순한 이용과 정부의 공권력투입 등 어떤 경로를 통해 돈을 낭비하고 있으며, 환경 정리라는 미명하에 강좌명만을 보고서 강의에 참석했더니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럴때 다른 강좌를 청강해 보고서 수강신청을 정정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심오한 학문의 세계를 짧은 몇번의 강의로서 판단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그나마 선택은 해야 하므로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며 변명 또한 변변치가 못하다.

이의 처리를 담당하시는 교직원 선생들께서 조금 수고스러울지라도, 대학의 존재이유와 수강신청 정정의 목적을 인지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은 사라질것이다. 대학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처리가 되어야지, 행정처리 그 자체의 편의를 위한 행정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 은 종
〈사범대 교육학과〉

동/문/칼/럼

나의 영원한 추억의 배움터

학교를 떠난지도 벌써 아홉해가 지났지만 가끔씩 들러보는 교정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불상앞의 잔디밭과 분수대, 광대앞의 농구대, 다향관의 매점 등 그 어느것 하나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은것이 없지만 사범대 앞 홀로 서있는 온순이의 추모비를 들를 때면 그때 그시절, 터져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길 없어 어쩔줄 몰라했던 나의 학교시절이 떠오르곤 한다.

당시는 80년의 봄이라 일컬어지는 민주화 열기가 폭압적인 독재정권에 의하여 꺾여버리고 광주항쟁마저 총칼에 의해 짓밟혀 버린 뒤라 학교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분위기였다. 교정의 잔디밭은 사복전경들이 차지하였고 각 건물의 요소마다, 심지어는 수업하는 강의실까지 감시의 눈초리가 번득이던 때였다. 학우들은 숨죽여 이야기하였고 '광주'라는 단어는 입에조차 올릴수가 없었던 살벌한 시대였다. 한탄과 절망과 분노를 견딜수 없어 소주 한잔을 털어 넣으며 울분을 삭이던 그러한 시대였다. 화창한 봄날씨가 한층 무르익어 가던 5월 어느날, 나른한 오후 기운을 깨뜨리기라도 하듯 도서관 베란다에서 시위를 이끌던 선배가 경찰에 쫓겨 밑으로 뛰어내리다 발을 다쳤고 은행나무 위에서 의연히 '민주'를 외치던 낯익은 선배의 얼굴이 잠시후 짙은 최루가스와 매캐한 냄새, 전경들의 미친듯한 발자국 소리에 묻혀버렸던 아픈 기억은 나의 슬픈 기억이자 자랑스러운 기억이다. 나 역시 일년후 타의에 의해 학교에서 쫓겨갔지만 동악을 통해 알게된 많은 것은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배웠고 이 사회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관을 배웠고 더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후배들을 만난건 나의 행운이었다.

지금은 조그마한 출판사에서 책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일 자체가 사무실보다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가끔씩은 퇴계로에 위치한 '민주동문회'사무실에 들르기도 한다. 초라한 공간이지만 다정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 언제나 푸근한 느낌을 준다. 학내의 돌아가는 이야기와 후배들의 학교생활, 보고싶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회사일에 쫓겨 잊어버리고 살던 세상속의 이야기도 여기에서는 곧잘 듣는다. 나의 포근한 둥지인 것이다. 동국의 문을 같이 들어간 인연의 끈이 이렇게도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관계를 이룬것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들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인생 또한 열심히 개척하면서 살아 갈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스스로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학과생활의 소홀과 경도된 독서였다. 당시의 상황으로 변명한다 하더라도 나의 학과생활 소홀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결국 학교생활의 반밖에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도된 독서이다. 다양한 내용의 독서를 통하여 사고를 키워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독서는 사고의 빈곤함과 허약함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독서와 왕성한 학내활동을 다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짧은 대학생활이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동악을 잊지 못한다. 영원한 추억의 배움터로.

목멱산 아래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는 동악의 구석구석은 우리들의 추억의 장소이자 만남의 장인 것이다. 언젠가 이곳이 그리워 질 때면 서슴없이 찾아와 옛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소주 한잔에 스미는 우정의 그림자를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학창시절의 뜨거운 심장으로 동악의 뜨거운 품을 그리워 할때가 있을 것이다.

'창창한 남산기슭 우리동대'를 목청껏 부르며….

송 세 언
<돌베개출판사 영업부장·식품공학과81학번>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사건 본질 알리는 구체적 증거 제시필요

"엄마!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어요" 끝없는 방화와 철거깡패의 살인적 철거의 공포를 호소하는 서초동 꽃마을에서 온 어느 국교생의 편지와 서초동 재개발지구 현장취재가 또다시 대다수의 학우에게 감정적인 동정의 대상으로만 한정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몇자 적고자 한다.

방학중 철학·국문·일문·영문과가 수행했던 신정동 6-1지구 빈촌 선전대자보에서 보여지듯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과 돈과 폭력을 교묘히 이용하여 재벌이 앞장서고 정부가 받쳐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철거민의 고통을 보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학우라면 누구나 동정심을 느끼며 가슴 아파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학언론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기사처럼 또다시 "철거민은 불쌍합니다."를 호소하는게 아니라 가진자들의 논리가 법의 교묘에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이 진정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재개발사업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학우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가속화되는 재개발사업과 자기집을 못가진 사람이 전인구의 70%인 현실, 우리 학우의 대부분은 예비철거민이기 때문이다.

김 원 경
<문과대 일문과>

동악광장

목멱골

☒축하합니다

■환상의 목소리 지혜, 예술적인 기술 항주, 너희들과 첫방송해서 행복하다. 우리 자축하자.
-DUBS 이 PD

■공사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투쟁!
-사우회 13기

■외계인 E·T+알프, 태열오래비의 생일을 축하해요. 추석연휴라 챙겨먹지도 못하구 쯧… 대신 송편이나 마니 아니 얻어먹어요.
-나방

■DUCA 양촌리회장 생신 축하합니다.
-뽀족넴비·똥광外 9기

■9월20일 백상16기 정민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백상16기일동

■결실의 계절에 태어난 우리 성숙이 생일을 민사인은 무지무지 축하해요.
-민족사연구회

■호두 지현이 생일 우리모두 축하해요.
-92 이연심外 일문인

■일문과87 성호·우용·원식이형 잘가잉. 건강해잉. 굳세다 87. 장하다 87.
-일문과 90 은아, 일경, 원경

■지혜야. N·G내지 말고 방송잘해. 첫방송 축하한다.
-재동대 신목고동문회

■이쁜이 은희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극예술연구회.
-선배·92동기들

■찐따리(지석현), 우리모두 잘살아보세! 석현아. 생일 그리고 첫·방을 축하한다.
-DUBS 내가, 물론 발까도, 바보이 PD도

■지혜야! 방송탄거 축하해. 버벅대지 말고 잘해!
-수진, 우진, 현선

■종환이, 학종이, 그게 누구야? 왜 있잖아 산·공과 테니스부, 개들 군대간대! 우리모두 환송해주자고!
-19기 벽 20기 원일이가

☒수고하셨어요

■동국서도회원 여러분~ 힘들기만 했던 작품마감들. 이제 멋진 전시회가 우리를 기다려요.
-91학번 일동

■Work-shop공연을 무사히 끝낸 구이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전한다.
-극예술연구회 86학번 어느 선배가

☒알립니다

■9·19~20(日) M·T가니까 모두 모이세요.
-그리고… 그림

■가락고동문회. 19일(토) 4시 경원대 안에 있는 분수대 모두 다 나올것.
-회장

■경신고. 18일(金) 5시 동문회. 만해시비앞에서.
-부회장

■광남고동문회. 18~19(土) M·T갑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동문회장

■정모야! 광호야! 우리 현과 현 M·T간데이. 19일날 북한산에서 보자. 하모 하모.
-현과현짱

■한성 "화려한 외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저희 동문회에서는 환락의 1박2일을 마련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사오아~요. 장소는 한탄강, 일시는 19~20(日).

■8월31일(월) 테니스장앞 세면대에서 시계분실. 습득하신분 영문과 학보통에 넣어주세요.
-효진

☒열심히합시다

■고향에 잘들 다녀왔어라. 이제 마음을 다그쳐먹고 힘찬 2학기를 달립시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佛長 苦子(合掌)

■현여울. 추석 잘 보내고 석현이 이번 연주회 잘하고.
-g·s

■추석동안 먹은 송편만큼 앞으로 있는 명진학술제도 잘하고, 더욱 더 건강하고 활기찬 문과대 집행부로서 더 높이 뛰어요. 언니, 오빠, 동기들 더욱 힘찬 마무리를…. (새날다짐, 힘찬마감)
-문과대 귀염둥이 문화부 차장

■정태야. 건강한 얼굴로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쁘다.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언제나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 볼 수 있음 좋겠다. 축하한다.
-널 반기는 史友人중 하나

☒그리고…

■지교과 92 개똬들아 추석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알라뷰~
-92 女王

■오랫만에 이쁜 혜성이를 봐서 너무 좋았어요. 조금 더 건강해졌음 좋겠어요. 덕분에 쌍꺼풀이 생긴 혜성이가 샘나요. 아유! 부러워라.
-선화가

■공과대 귀염둥이 기공과 여러분! 원흥제때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한번 보여줍시다.
-창현이가

■우의동낭자 추석 잘 보냈소. 공부방아그들도 떡좀 먹였겠죠. 대학살이 열심히 하고 또 만날때까지 몸성히 잘있소.
-남산골도령이

■답사 잘 다녀옵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92 지·교女神

온방골

☒축하합니다

■9월8일 진환이 생일이라네, 귀빠진날 코까지 빠져라! 뽕뽕(kiss)해 줘야지.
-국문과 92학번 아그들(4명)이

■9월20일은 영태가 탄생한날(and) 우영이 미팅하는 '날' 관경 1년생들 마이 알아줘라. 영태야 축하한다!
-니를 지켜보는 관경의 한 여자

■9월19일 중원 사파의 두목 미정마두(국문91)의 생일임. 축하함.
-중원천존

☒알립니다

■87전윤수형 결혼을 축하합니다. 더도 말고 옥토끼 같은 아들하나 낳아 잘 기르라구요.
-후배일동

■나를 슬프게 하는 문제, 병상이의 제대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야! 웬만하면 말뚝박아라."
-전산과 89학번 머저리

■철학과 92학번과 졸업동기가 되신90학번 김 수광씨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92학번 이쁜이들

■동국大 최고의 그룹 사운드 바라밀이 16日 공연을 갖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또 국사학과 2학년 원석형의 군입대를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바라밀 12기 동생들

■동대신문에 이름 한번 나 보는게 소원인 전산과 깍쟁이 효선, 영정, 자희야 추석 잘 보내고 갔다오면 곗돈 꼭내길 바란다.
-언니 현미

■오상 학우님들께
추석 잘 보내셨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19일날 모여요.
-동문 숙이가

■전산과 학우 특히(1학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는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봅시다.
-입큰 아이가

■희돈, 도경, 상영이 보거라. 선배 팬티 줄여 놨다. 그리고 모든 결 용서하마. 다시 돌아 와라.
-산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제3회 아르내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내 장

■도서관 휴게실 진흥관 학생회관 식당 관계자들께 요구합니다. 깨끗한 물(식수)을 좀 준비해 주세요.
-수교 물 먹는 하마!

■…미운 오리! 널 알게 된 걸 후회한다. 우린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미운 오리를 좋아했던(?) 아이가

■도도(도서관 도선생) 많이 들고 간만큼 경제가 윤택해지리라. 돈이 많이 모이면 수구말에 똥된단다. 썩지않고 냄새 만나는 똥(=돈)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 9월7일 도서관 2열람실에서

■많은 이별의 편지와 함께 시작하지 말기를 바라마지 않는 우리의 젊은 군상들의 아쉬운 이별을 하얀 웃음으로 인사하여 봅시다.
-里郎 漢文91학번

■진보학생연합이 18일 고리방에서 '하루찻집'을 해요. 친구들 많이 와 주세요. 특히 소진이 친구 혜주, 영화, 미선이는 필수 참석!

■동료학우 박태용의 빠른 회복을 함께 기원해 주실래요? 동대병원 6층
-미술과 오치환과 넙치형

■9월7일 우리가 한 눈 파는 사이에 없어져 버린 제리를 늘 애타게 찾으며 조그만 귀에 붕 뜬 가발머리를 한 왕순이의 제리를 보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국사학과 매란국죽

■축! 국사학과 졸업여행 9월15일부터 3박4일 동안 멋있는 추억 만들고 오자. 윤정아, 지영아, 민택선배 선물 많이 사올께
-연숙

■아직 못다한 이야기와 젊음을 남겨둔채 아무말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미안 하네요
-Bacteria kang

■…참사랑회에서는 9월19일(土) 12시 정문에서 메아리로 출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시사논단

조 세 형

현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정권말 7대 국책사업 규모 총 30조원 넘어

무리한 사업발주…'정치자금 확보'의도

우리나라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6공화국은 재벌을 비롯한 기득세력의 지지기반 위에서 탄생한 정권이다.

따라서 현정권은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거두어 이를 각종 선거나 정당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직도 우리 기억속에 남아 있는 수서비리사건, 정보사땅 사기매각사건, 그리고 정주영씨가 밝힌 바와 같이 현대그룹이 청와대에 주었다는 2백60억원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재벌은 정치자금을 주는 댓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고리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권말기에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등이 시공되거나 내인가되고 있어 정경유착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현정권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5개월 남았다. 그런데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국가적 대형사업들을 한꺼번에 착수하고 있다. 공사비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산정되는 경부고속전철, 10조원에 이르는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 연간 시장규모 2조원 이상이 되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한 삼성 상용차 신규허가나 종합금융회사 3개사를 더 내주려는 기도, 그리고 종합유선방송 허가나 LNG수송선 건조허가 등등 이들 7개 대규모 국책사업의 총규모는 무려 30조원이 넘는다. 결국 '이 정권은 돈이 될만한 것은 다 팔아제낀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들 각종 사업의 배경에는 수의계약이나 내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특혜의혹이 있으며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

경부고속전철 차량의 종류 결정과 공사발주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경부고속전철 차량의 종류는 90년 5월 노태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직후에 바퀴식으로 결정됨으로써 수천억원의 정치자금 거래 의혹이 생겨났다. 그리고 경부고속전철 노반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두배 높게 발주되어 의혹을 사고 있다. 소위 시험구간이라고 하는 천안-대전간 노반공사 발주를 정부가 했는데, 그 평균 공사비가 1㎞당 1백5억이나 되었다. 이는 경부고속전철 입안 당시에 공사비를 1㎞당 56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비교하여 두배 가까운 액수이다. 거기에다 건설업자에게는 선수금을 5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넉넉히 예산을 선수 지불하여 거기에 다시 넉넉히 정치자금을 떼어내는 일이 있다면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속전철은 수년간만 더 늦추어도 21세기 첨단기술인 자기부상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이미 바퀴식으로 정해놓고 공사기공을 시작하였다. 의문투성이, 모순투성이다.

제2이동통신은 노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선경그룹으로 정해놓고 짜맞추기를 진행하다 국민과 여론의 반대로 일단 좌절되었다. 정부는 이동통신 인가 업무를 잠정 중지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선경이 반납을 발표하면서 "다음 단계에서 다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과 아울러 다음 단계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선경에게 인수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명백히 남긴 것이다.

이는 최근 민자당의 김영삼 총재가 선경측과의 밀담과정에서 차기정권에서 이 권보장을 밀약한 혐의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 우롱행위이다.

영종도에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합리적인 타당성검토 이전에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로 확정되었다. 이는 일부 여당 정치인 및 대토지소유자와 미국의 다국적기업 '벡텔'사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1만평이상 토지소유자 중 외지인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삼성중공업에 상용자동차 신규허가를 내준 것도 의혹투성이다. 삼성의 지동차 산업 신규참여는 정부의 업종전문화시책과 세계지동차 회사의 대형화추세에 역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삼성의 상용차 신규허가는 정부의 사전내락설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의 종합금융사 신설방침은 일단 유보되었지만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금년말 혹은 내년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생명보험등 특정 3개사로부터 이미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설도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때 현 재무부장관을 비롯한 당국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

LNG수송선 발주도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이미 LNG수송을 6개 해운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단일회사에 맡겨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를 주었다. 지금까지 4척의 LNG수송선이 발주되었는데, 앞으로 2003년까지 모두 10척의 국적선이 발주될 예정이다. 배 한척 값이 2천억원이나 하는 거대한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계속할 경우 국고피해는 막대할 것이며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그만큼 커진다.

종합유선방송 허가와 관련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허가도 다음 정권에 위임해야 한다.

이밖에도 6공말기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적 공감이나 합의가 도출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확정되거나 공사가 착공된 점, 투자 우선순위의 문제점,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외채증가의 가능성, 환경문제 파생우려 등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함께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무모한 대규모 사업추진이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다. 자칫 이것이 어려운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최근에 있었던 정보사 토지매각을 둘러싼 대형 사기사건을 비롯하여 수서비리, 청와대 정치자금수수, 민자당 연수원 매각파동등과 함께 정권말기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는 6공의 총체적 부패의 일단이다.

사설

학생회 다시 서야 할 때

2학기를 맞이한지 한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개강초부터 총동창회입회비 부활, 신규교수 채용과정상의 비민주성, 비공개성등으로 학내의 요란한 분위기는 예년과 비교해 볼때 크게 다를바 없다.

해마다 학생회 사업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2학기 학생회활동의 무기력함은 지켜보는 학생들을 실망케 하는데 충분하다. 지난 1학기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속에서 힘있는 2학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학생회사업의 필수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학생회의 모습은 각 단위주체들의 이탈및 공석등으로 인해 조직체계가 이완된 상태에 있다.

지난달 총대의원회는 총학 1학기 통산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감사를 통해 공약사업의 실행미흡, 집행부서의 조직적 이완, 각 단위 학생회와의 연대부족등이 지적됐다. 총학생회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진정 학생회 강화측면과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이에 대한 극복방안의 강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는 이번 2학기 학생회사업에 대하여 결의에 찬 모습으로 진군식을 통해 학생들과 공유했어야 한다. 하지만 개강초부터 전개된 총동입회비 부활등의 시기적 역관계속에서 이를 추진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

얼마있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으로 학생회는 치닫게 된다. 단과대학 선거, 총학선거등 빠듯한 일정의 연속일 것이다. 이속에서 학생회는 지난학기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그때그때 분임토의 활성화를 통해 수렴해내고 이후의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하나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총학운영위의 정례화를 들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운영위의 매주 소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회의 강화를 부르짖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동악을 대표하는 학생들의 학생회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혁신은 물론 간부의 혁신이 시급하다.

지난 15일 개최된 운영위는 근 한달여의 공백을 깨고 소집이 되긴 했지만 운영위내의 불신과 오해의 폭은 이견의 차원을 초월(?)한 것이었다. 1학기 한시적으로 진행된 운영위 회의내용의 공개 또한 속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실행이 없는 상태에서 치루게 될 선거공간은 여전히 학생회사업의 강화는 커녕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가오는 백상체전과 각 단대별로 활발히 진행될 축전 · 학술제등 행사기간중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고 생활하는 학생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단위 과학생회를 기반으로한 활발한 논의체계의 정착화가 요구된다. 즉 분임토의 전개속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는 표출될수 있을 것이다.

더이상 표류하는 학생회, 아무일 안하는 학생회, 서로의 불신과 오해가 뒤범벅되고, 분열된 학생회의 오명을 남겨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학생회는 받아안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학생총회나 학생대표자회의등의 공식석상에 이끌어 내야 한다.

요즈음 공공연히 진행되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에 강고한 연대의 장을 형성해 내면서 2학기 학생회의 원활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내부의 단결된 모습에서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신심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학생회 주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교수연구년제 활성화 필요하다

연구성과물 객관적 검증제도 필요

전임교원 부족… '연구년제' 침체근원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교원에게 교수능력 개발과 학술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기간을 부여하여, 학교에 복귀한 후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

89년 2학기부터 시행된 '교수연구년제'의 이러한 취지는, 매학기 9시간이상의 강의를 맡고 방학중엔 강의준비에 바쁜 교수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거나 국외 관련학술자료를 수집 · 검토해 새로운 이론을 강단에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년제 시행은 △교원확보미흡 △교수들의 인식부족 △연구성과의 객관적 검증부재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초 취지 또한 살리지 못하고 있다.

89년 2학기부터 93년 8월까지 연구년 혜택을 받은 교수는 총 31명(서울30명 경주1명)이다. 이는 매년 전체 교원수의 5%이내로 선발할 수 있는 규정 제5조1항의 연구년 가능인원의 총수에 못미치는 수로, 89년 2학기를 제외하고 매년 매학기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아직 교수연구년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개정, 교수확보 등의 조치가 미흡해 자칫 제정의의를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될 조짐이 커 심각성을 더해준다.

교수연구년제가 이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교원부족에서 오는 수업부담이다. 교무처 자료(8월집계)에 따르면 본교 교원확보율은 51.8%(서울61.0% 경주43.4%)로 교수1인이 연구년 · 교환교수 · 해외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다른 교수의 수업부담이 커진다. 더욱이 우리대학의 경우 보직을 모두 교수가 맡고 있어 보직을 맡는 교수가 속한 과의 결원이 생길 경우 3 · 4학년 전공도 시간강사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직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은 학 · 실 · 처장등이 3시간, 부속기관장등 그외 보직은 6시간이다.) 또 교수확보율이 50%를 밑도는 경주의 경우 연구년신청은 '요원한 소원'일 수밖에 없다.

둘째 규정상의 자격제한 문제이다. 규정 제2조1항은 '10년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을 자격요건의 첫째로 꼽고 있는데, 이경우 현재 본교 상황에서 고령의 교수가 해당자가 된다. 따라서 연구년을 자칫 '안식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인식의 굴절현상을 보일 수 있다. 학술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10년이상 근속교원이 고령인 것은 사실이나 30 · 40대 젊은 교수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5년이상이 경과하면 대부분의 교수들이 자격요건을 갖출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이 자격제한 규정은 근속7년이하로 낮추어야 활발한 연구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 교수들의 '쉬는기간'인식도 바꿀 수 있다.

또 연구년시행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연구성과의 객관적 검증부재이다. 현규정은 연구년 종료후 6개월이내 공인학술지에 연구성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년선발교수마다 연구성과의 질은 판이하게 다르다. 어떤 교수는 1년동안의 연구를 단행본이나 권위있는 학술지로 발표하는가 하면 일부는 그렇지 못한경우가 있다. 문제는 학술발표회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제도가 전혀 없고 학술부내에서도 이러한 검증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연구년을 '안식년'으로 보낸 교수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93년 1학기부터 1년간 연구년 혜택을 원하는 연구년신청이 18일 마감된다. 이번 연구년은 교수총원 4백55명의 2.5%인 11명이 선발가능 인원인데, 예년의 신청지수를 보면 이번역시 '미달사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 연구년대상자선발은,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 자격요건 심사만을 한 채 연구년을 선발해 일부에서는 '교수들의 도피성 신청'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고, 선발된 교수에 대해서도 "자격이 안되는데 선발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는 교수들도 많다. 교수사이에서도 현행 연구년제가 '학문내용의 보충과 전문성 제고, 학술자료 수집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적당히 연구하고 그동안의 피로를 푸는 '안식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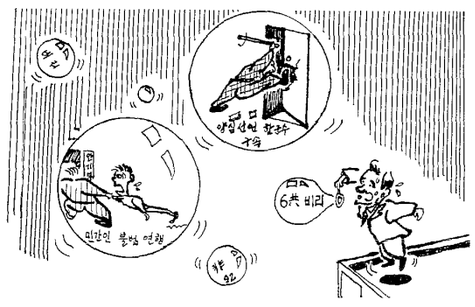
연구년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제정취지를 살리고 교수의 인식전환을 위해 학술토론회등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내년엔 좀 쉬고싶어"라는 한 교수의 말은 연구년 목적을 무색케 한다. 1년간의 연구기간을 부여하면서 월급, 연구비를 지급할거라면 이에 합당한 연구년제가 될 수 있도록 각 규정과 시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바른 연구년제 시행을 위해 우선 해결되야 할 것이 교원증원과 연구성과 검증제도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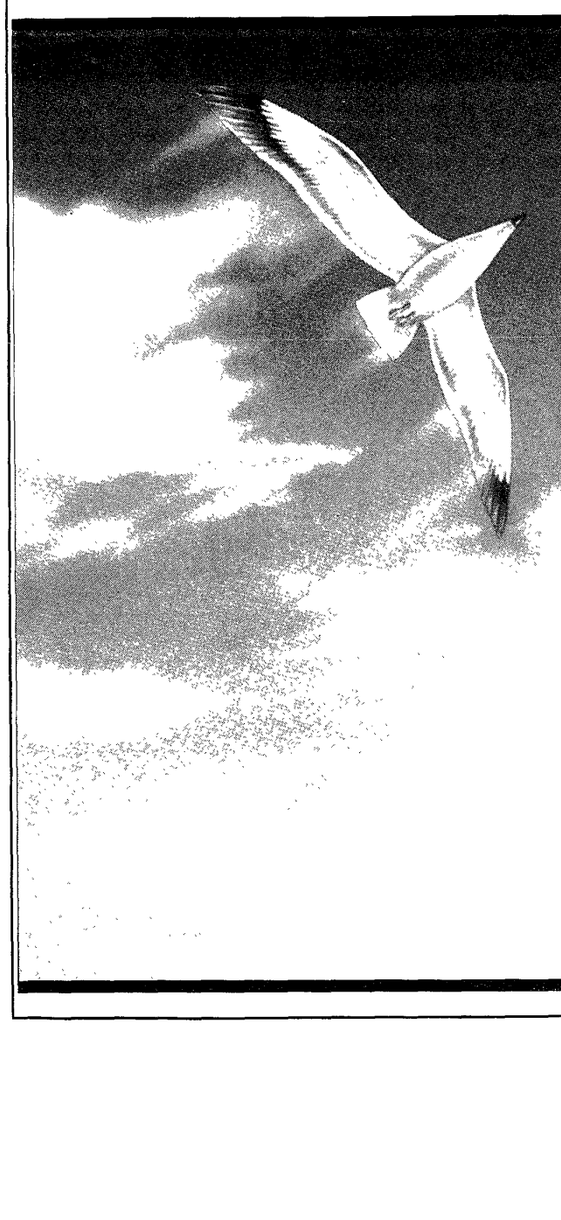
<사회부>

東國漫評

이 종 필



"뭘 믿고 저래?"



미래를 향한 꿈과 도전—
바로 효성의 정신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래를 펴는 효성그룹—

효성그룹은 무역, 섬유, 화학, 전자, 중공업, 타이어,
피혁, 건설 등 각 산업분야에서 쌓아온 신뢰와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효성은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산업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21세기의 꿈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꿈이 있는 곳에, 희망찬 미래가 있는 곳에,
언제나 효성이 함께 합니다.

효성그룹

●효성물산●동양나이론●동양폴리에스터●동양엠공●효성중공업●효성바스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효성데이타시스템●효성 B & H●효성드라이비트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동광화성●효성 ABB●효성에버라●한국타이어
●한국전지●대전피혁●동성●대성●효성금속●효성기계●효성기계판매
●효성이륜차판매●효성기계서비스●동성개발●효성 ASC

국내기업… 폐수·매연 무단배출

기업과 환경문제

금성은 96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섭씨 438도이다. 지구대기의 이산화탄소는 1900년대 중반부터 연간 2퍼센트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90년 광화문 일대에서 환경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환경관련 회원들.

환경 고려않는 'GNP 경제학' 지양돼야

기업인환경선언…국민의식으로 실천강제해야

지난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와 민간단체들 간의 회의인 '글로벌 포럼'이 열린 후 세계는 환경정치, 환경경제의 시대로 들어선 느낌이다.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노력이 기속화되어 가고 있고, 기업들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경제산업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 91년 3월 두산 전자의 페놀유출사건이 일어난 후, 국내 전자산업에 여파가 미친다 하여 환경처가 두산전자에 대한 한 달간의 조업정지 조치를 20일만에 해제한 것이나 대구지역 비산염색공단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으로 후퇴한 것은 그 좋은 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안이하기 짝이 없다. 산업부문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 증가량이 17.5%로 세계 제일을 기록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은 그 절반인 9.1%에 지나지 않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산업생산력과 국제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져 갔던 것이다. 이제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GNP경제학'에 대한 신봉은 막을 내려야 한다. 아니 세계적 추세로 막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물과 공기, 토양 등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 인식하는 낡은 경제학의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발생배경을 본다면 다음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문제의 발생은 정부(또는 국가권력)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크게 결정지어진다.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개발제일주의'를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에 의해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생산량은 많아지고 GNP는 높아졌지만, 정작 인간다운 생활에 시급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먹거리'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둘째, 환경문제는 자본(기업)과 노동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다. 원료를 가공할 때 또한 부산물로 오염물질이 나오며, 제품을 만들 때에도 부산물로 각종 오염물질이 나온다. 공업측면에서 보면 공장폐수, 공장매연, 산업폐기물 문제등이 그 중요한 경우이고, 농업 측면에서 보면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인한 오염과 수입식품 문제등이 있다. 작업장 내에서의 환경문제는 노동자 농민들의 산업재해, 직업병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산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회체제와 결부시켜 보면, 자본주의의 경우 자본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환경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며, 사회주의도 역시 환경보전보다는 눈앞의 생산목표에만 몰두하는 '생산력주의'에 빠진 나머지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째, 국민들의 소비와 생활과정에서도 환경문제는 발생하는데 가정하수, 가정난방등과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매연과 일회용품등 생활쓰레기 문제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 활발한 시민운동을 통하여 많은 부분에서 해결의 전망이 보인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일회용품등의 생산을 억제하는 등 근본적으로 쓰레기 공해를 막는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

네째로는 다국적기업의 형태로 환경문제가 국경을 이동하며 발생하는 경우이다. 선진산업국가의 사양화된 공해산업이 후진개발국가에 수출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폐기물등 공해물질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로 떠넘겨지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공해기업 듀폰등의 국내 진출로 인한 환경문제(프레온가스 문제, 이산화티타늄공장 건설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상의 환경문제 발생원인 중 경제주체인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연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환경처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3종 이상 대형업소의 환경법규위반현황'에 따르면 국내 50대 순위 그룹중에서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선경, 대림, 벽산 등 23개 그룹계열사 35개 업체가 폐수, 매연, 분진 등을 기준치이상으로 무단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폐수, 매연, 분진, 소음등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것이다.

지난 6월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환경오염의 실태 및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오염배출업소 단속 횟수는 80년에 배출업소당 0.5회에서 88년에는 1, 2회로 2배가량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의 점검 대상업체 수는 2.4배나 늘어 단속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도 85년도에 비해 16.6배 증가했으나, 전체 기소인원 중 벌금형이 80-90%나 되고 법원 1심 재판의 실형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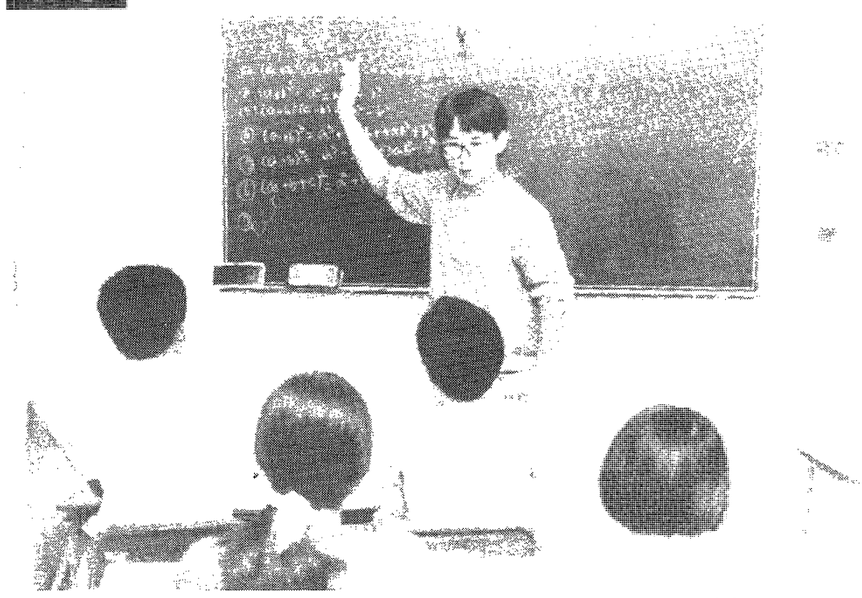
정부는 지난 6월 5일 '국가환경선언'을 발표하여,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활동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창하며, 환경에 관계되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산업구조를 자원이 절약되는 형태로 하루바삐 개편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의 대응도 전에 없이 바뀌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등 경제 5단체는 5월말 '기업인 환경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 기업과 기업인은 그동안 경제 개발 과정에서 생산시설 확충 등에만 주력함으로써 이제까지 환경오염 및 공해문제를 일으켜 온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앞으로 기업활동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중시하는 기업풍토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을 위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다던 1년전의 자세와는 크게 다르게 변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말잔치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다. 기업이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본의 이윤보다 환경방지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까지 나서게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밖에 없음을 다시금 인식해야 하겠다.

황 상 규
〈공해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탐방 구로구 '섬돌야학'



전 후원회 "신도되라" 회유에 교사진 "독립" 결정

자금 확보 대책없어 운영에 곤란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 한 건물 지하에 자리잡은 섬돌야학.

여기서 조금 떨어진 영림중학교 앞에 위치해 향토학교라 불리웠던 섬돌야학이 장소까지 옮겨 독립한 것은 불과 몇개월전의 일이다.

향토학교라 하면 배움과 학문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야학으로 각 구마다 1개씩 있으며 교사진은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구성된다.

또한 야학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내의 운영자금 확보대책이 없다. 따라서 후원회가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실정이다.

섬돌야학 교사진들이 있었던 구로구 향토학교 역시 후원회가 있었는데 바로 통일교다.

"전에는 돈만 대주기로 하고 통일교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라고 본교 재학중인 섬돌야학 교무과장 유석환(기계공 1)군은 말하며 "그런데 얼마 지나자 후원사업보다 이곳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더군요"라고 말한다.

통일교에서는 구로구 향토학교에 운영자금을 대주고 대신 1명의 간사를 두었는데 언제부턴가 간사가 회유를 해오기 시작했다. 교사들에게는 "신도가 되면 유학을 보내 주겠다"는 식으로, 학생들에게는 "진학을 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 주겠다"등으로 신도가 될것을 권유해온 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후원회에 불만을 품고 독립까지 논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적 계기가 된것은 일본어, 산수, 영어회화등 학원식으로 주부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간사의 요구였다.

"간사의 요구는 신도들과 학생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학원식이라면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는 향토학교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지난 3월 22일 구로구 향토학교에서 독립해 입주한 곳은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37만원의 지하실이다. 나무판을 잘라 책상을 만들고 칸막이를 쳐 교실을 나눈 이곳에서 22명의 교사진들은 15-16명의 학생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친다.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개 이름도 없는 소규모 가내수공업 공장에 다니는 10대 20대로 학벌은 국졸, 중졸이 주를 이룬다.

10살때 부모님을 잃고 남동생과 할머니를 돌보느라 국민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하윤숙(20. 미성사) 양은 6만3천원의 첫월급으로 시작해 올해로 사회생활 10년째인 어엿한 사회인이다.

지난 5월 국민학교 과정에 합격하고 8월에는 검정고시 3과목에 합격, 내년4월에는 나머지 과목에 합격하겠다고 하윤숙양은 밝힌다.

"합격증 받고 너무 기뻤어요,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구요. 제게 소망이 있다면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으면 해요. 늦게 퇴근하고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어렵게 자라난 이들에게 자아실현의 최소한이라도 안겨주고 싶다는 교사들은 지난 4월 검정고시에 7명중 6명이, 지난 8월에는 5명중 1명이 합격해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듯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운영자금이다. 현재 구로구 약사회에서 지원해 주는것 의에는 후원회가 조직되 있지 않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일일 찻집까지 열 계획인 섬돌야학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농담섞인 말처럼 모두가 진지하고 열심이다.

〈전미영 기자〉

동악로

동국관 M동 1층으로 옮겨 새로 단장한 예술대 학생회실안에는 '확대간부회의'소집을 알리는 대자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 회의는 현재 미술학과가 사용하고 있는 옛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헐리고 들어설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에 때맞춰 예술대 공간확보를 위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는 학생회 집행부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 예술대 숙원사업인 단일 공간확보를 위해 학교당국에 건의해 왔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현재 동악내에서 활용해 볼 여지가 있는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라고 말하는 한 집행부는 학교에 건의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극영화과 소극장에서 만난 한 학생은 본관 1층과 동국관 뒷편에 있는 미술학과의 건물은 실습이나 작업을 하기에 비좁고 시설은 낡아 고장난 것도 있어서 박물관처럼 느껴진다고 푸념했다.

이제 올해 말로 예정된 동국학술문화관 건립공사가 착공되면 당장 미술학과 작업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 임시변통해야 한다.

그야말로 '집없는…' 꼴이 될 이들은 그나마 동국학술문화관 신축에서 예술대 실습실과 번듯한 공연장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예대 새점마련

학교측도 올해 3월초 예술대학생회 간부들의 '단위공간 쟁취 단식농성'이후 공간확보를 위한 수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축될 동국학술문화관은 5층 규모로 8개대학원 이동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설, 예술대 실습실 일부 수용안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에 김홍우(영극영화학과장) 교수는 "독립된 형태의 실습공간을 동국학술문화센타에 배치하는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으나 2층규모의 세미나실을 겸한 중극장 설비는 있어야 한다"며 "진행추이를 보아 이를 학교측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전 학생회와 학교당국간에 단위공간 확보를 위한 협의도중 불미스러운 마찰이 있었음을 되새기며 이번 예술대 공간 확보는 본교 공간마련의 한계를 인식한 냉철한 협의의 자리로 매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수로 기자〉

BUDDHA LAND

「부처님 땅」에서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불지사는 도서출판 「불지사」·도서출판 「동쪽나라」·월간 「굴렁쇠 어린이」·편집대행 「불지사」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불교 출판문화의 기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족이 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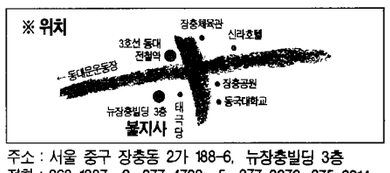
연구직 사전 및 단행본의 출판을 위한 각종 원고의 집필 및 번역업무입니다. 섬세한 문장력을 필요로 하며 한문·영어 일어·중국어중 하나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계시면 좋습니다 혹시 서지학, 아동학, 미술, 문학, 컴퓨터 분야의 전문능력을 갖고 계시면 별도 영입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 불교 상식은 기본입니다

편집직 불교 편집·출판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을 찾습니다. 창의력이 있으시면 3년~4년의 노력으로 DESK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됩니다. 경력자는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업직 전국의 서점과 사찰을 상대로 한 영업업무로서 월간 「굴렁쇠 어린이」와 출판서적 등을 판매합니다. 운전과 컴퓨터 관리능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좋고, 불교계에서 신앙활동이나 영업활동에 경험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경력에 참조하겠습니다.

관리직 인쇄 제작업무를 담당할 1명은 운전능력이 필요합니다. 경리 담당요원 1명은 컴퓨터 관리능력이 필요합니다.

1 이상 각분야 2~3명씩을 모집합니다. 남녀, 학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 각자의 경력을 본사의 직급 및 호봉에 맞추어 대우해 드립니다.
3 준비서류는 이력서 1통과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는 「나의 능력과 포부」(200자 원고지 6매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나 추천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4 서류 검토와 면접의 1차·2차 관문을 갖습니다. 결과는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5.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해 주십시오. 9월 30일까지 아무때나 좋습니다.

※ 위치


주소 :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3층
전화 : 263-1387~9, 277-4723~5, 277-2676, 275-6914

도서출판 佛地社 편집대행 佛地社 도서출판 동쪽나라 월간 굴렁쇠어린이

최신 사회과학 학술정보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 편리한 정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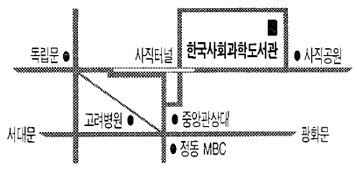
이 3가지를 모두 갖춘곳,

한국 사회과학도서관 입니다.

■소장자료
- 최신간 단행본 : 56,000여권, 국내외 학술지 : 1,300여종
마이크로폼 자료 : 55,000여점, 국내외 학위논문 및 각종 연구논문
국제기구 발행의 통계 및 보고자료, 미국 외교문서
- 이상의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자료의 주제분야
-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사업학, 여성학, 지역연구 및 그 인접분야

■개인연구실 이용안내
- 대학강사 이상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분을 위한 개인연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회원제
-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은 정보서비스 회원제를 운영,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편리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 서비스 내용
1. 신착자료속보제공(월간)
2. 소장정기간행물목록 제공
3. 신착도서목록 제공
4. 서신 및 전화신청에 의한 자료복사 및 우송
5. 희망도서 구입 신청서 적극 반영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서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과학도서관
THE KOREA SOCIAL SCIENCE LIBRARY
종로구 사직동 304-28 TEL. 738-5015, 739-9258 FAX : 735-2693

사립대학 재정지원 법근거 마련해야

국방비 매년 증가-교육예산은 '들쑥 날쑥'

국방비 증가와 정부의 교육투자 비교

지난해부터 한국개발원, 전국 경제인 연합회등 민간단체에 의해 국방비 감축의 문제가 거론되더니, 1993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면서 경제기획원과 국방부간에 그 감축 여부를 놓고 국익적차원에서 논란과 마찰이 표출되었다.

경제기획원은 냉전체제가 종식됨은 물론, 한·러수교 및 한·중수교로 동북아 정세가 변동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므로 통일에 대비한 국방정책의 전반적인 재수립이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성역을 깨고 방위비를 감축하여 사업비로 써야하기 때문에 한자리 숫자인 8~9%이상의 증액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우리 한반도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군장비의 현대화, 인력집약형 군조직에서 장비집약형 군조직으로의 개편등을 위하여 18.1%의 증액이 불가하다며 금년 수준인 12.5%는 재배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적이고 타당한 예산논쟁은 가치롭고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육,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은 많은 횟수를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부재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방비 못지 않게 중요한 교육비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난의 심각성을 재확인해 보고자 하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하는 계기로 대변하고자 한다.

정부예산중 교육비 예산과 국방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91년의 경우 교육예산은 5조5천5백95원으로 정부예산중 17.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7조7천6백78억원으로 정부예산중 24.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992년의 교육예산은 6조4천3백30억원으로 정부예산중 19.4%를 차지하였으나, 국방예산은 8조7천3백80억원으로 정부예산중 26.3%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정부예산중 방위비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교육비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고 그 규모가 2조 3천억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총생산 대비 교육비와 방위비의 추세를 살펴보면 <표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년도별 구성비율에 있어서 교육비는 3.0%를 기선으로 하여 상향 또는 하향되어온 추세를 반복하여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방비는 1985년의 무려 4.9%선에서 해마다 다소 하향되어온 추세이나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4.0%를 상회하였다. 그러다가 1991년의 3.8%, 1992년 3.7%선으로 점차 뚜렷한 하향추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교육비와 국방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히 일정비율의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다만, 교육비의 인상률은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어왔고 방위비의 인상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왔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비의 예산이 1983년에는 GNP의 2.93%였고 1991년에 와서는 2.71%까지 하향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총생산 중 공교육비 투자에 대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교육비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프랑스는 5.0%, 이태리는 4.6%, 일본과 영국은 공히 4.8%로 우리 보다 월등히 높은 교육투자를 하고 있다.

나아가서 외국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를 보면 재단지원, 정부지원, 기업 및 개인의 지원등 그 재원이 다양하고 <표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원규모도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미국 사립대학의 경우는 재단의 지원이 30%수준이고, 정부지원이 22% 수준이다. 그리고 기업 및 개인의 지원이 9%수준, 기타 수입이 10%수준으로써 학생공납금은 전체 재원의 2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재단의 지원이 20% 수준이며 정부지원은 15% 수준이고 학생공납금은 전체 재원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정부지원이 무려 85% 수준이며 학생공납금은 불과 전체의 12%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원은 학생공납금이 82% 수준이나 되고, 재단지원은 5%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고작 1% 수준으로 '새발의 피'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는 학생공납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재원 특히 정부지원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도 없다. 그러나 국방비는 1990년까지 방위세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국민조세부담의 일정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50년대말 국방교육법을 재정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조리를 마련하였다. 영국은 대학보조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사학진홍법을 제정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운영비의 15~30%)를 갖고 있다.

요컨대, 우리는 지금 중진국대열을 거쳐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하려는 기로에 처해 있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없이는 한낱 꿈에 불과함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또한 우리는 냉전체제의 종식속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과거의 꿈을 현실화시켜야 할 소명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한 태세도 무력무장보다는, 교육을 통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힘의 무장이 절실하다고 볼 때, 대학교육의 절대다수인 사립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이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이 길이 또한 국방을 위한 첩경이요 장기적 포석일 것이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국방예산 후진국 수준 못면하는 교육현실"

〈표2〉년도별 GNP대비 교육비·방위비 추세

(단위:억원,%)

년도＼구분	교육비 금 액	교육비 증가율	교육비 GNP대비	방위비 금 액	방위비 증가율	방위비 GNP대비
1985	24,923	9.5	3.19	38,025	8.3	4.90
1986	27,690	11.1	3.06	43,278	13.8	4.80
1987	31,239	12.8	2.95	48,010	10.9	4.50
1988	37,043	15.6	2.93	55,400	15.4	4.40
1989	43,446	12.4	3.06	61,653	11.3	4.30
1990	55,715	22.1	3.30	68,652	11.2	4.00
1991	55,595	2.0	2.71	77,678	13.3	3.80
1992	64,330	15.7	—	87,380	12.5	3.70

주:1991—1992의 교육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지방양여금제외

자료:교육부, 교육부소관 예산개요, 1985~1992.
중앙일보, 제8415호, 1992.8.27.

〈표1〉정부예산중 교육비·방위비의 구성비율 (단위:억원,%)

구 분	1991년 금 액	1991년 구성비	1992년 금 액	1992년 구성비
교육비	55,595	17.7	64,330	19.4
방위비	77,678	24.8	87,380	26.3

자료:교육부, 1992년도 교육부소관 예산개요, 1992.

〈표3〉사립대학 재원별 지원규모 국제비교 (단위:%)

나라＼재원	재 단	정 부	기업·개인	기 타	학생공납금
미국	30.0	22.0	9.0	10.0	28.0
일본	20.0	15.0	NA	NA	40.0
영국	NA	85.0	NA	NA	12.0
한국	5.0	1.0	NA	NA	82.0

주:NA는 Not Available

자료: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0.

정 진 환
〈사범대교수 · 교육행정학〉

◇ **제4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경제분과 논문 요지**

주종환 교수의 '토지소유와 자본'

근년 사회주의국인 중화인민화국에서도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개방화정책에 관련하여, 토지소유를 자본주의제국에서와 같이'사유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 구소련과 동구제국에 있어서도 토지사유화정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자본주의국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적 토지소유가 가져다 준 여러 폐단과 모순이 심화되어, 한국에서는 이른바 '토지공개념정책'의 등장을 보았고, 일본에서는 '토지기본법'의 제정에 의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반대의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들의 주장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실시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의 농지개혁도 사회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가 보다 활성화되려면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토지가 대부분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국가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자본가에게 국가의 이익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방화정책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땅값에 막대한 자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주의사회, 사적 토지소유 폐단 심화
"동구권·중국의 '토지사유화'주장은 잘못"

우선 결론부터 말한다면, 구 사회주의 여러나라에서의 토지정책의 혼미는 '토지소유'와 '자본'에 관하여 경제학의 선인들이 이미 제기했거나 해결해 놓은 개념과 일들을 제대로 흡수·소화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학설사적으로 더듬어 올라가 보면, 원래 토지의 국유화, 또는 지대의 국고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다 원활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지, 사회주의를 위해 토지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J.S. Mill, Henry George, A.R. Wallace, 나아가서는 Leon Walras등 토지국유화론자 또는 지대의 국고환수론자로 유명한 사람들은 결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급진자본주의자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특히 Leon Walras는 오늘날 자본주의 옹호론의 기초가 되어 있는 한계효용학파의 창시자로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학자이다. 그는 그의 유명한 '일반균형이론'의 전제로 돼 있는 '완전경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국유화가 되어있다는 전제위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자본가 상호간의 경쟁 결과, 지대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사회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더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토지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현실적인 세계사의 진전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국유화는 구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취됨으로써 비로소 실현되었고, 자본주의 여러나라에 있어서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국유화를 실현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런 점에서 토지국유화는 마치 사회주의자의 주장인 것같이 해석되어왔던 것이지만, 그 주장은 원래 자본주의의 보다 빠른 발전을 바랐던 자본주의자

공장이나 주택은 훨씬 값싸게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으면, 경제발전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이치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본가들이 토지가격 상승에서 오는 불로소득에서 생산활동에서보다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사유형태로 방치하도록 조치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토지소유와 자본의 이해관계가 일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와 자본은 같아보여도 결코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개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중이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여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에 의한 연합적 지배체제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자본가계급은 자기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과거의 동맹자였던 토지소유자계급이라는 군살을 도려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 바로 농지개혁이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줄곧 토지사유화의 원칙을 지켜오다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 토지투기가 성행하게 되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에 공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일단 국유화된 토지를 다시 사유로 환원해야 한다는 구소련이나 중국안에서의 주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전된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나 할 것 없이 토지소유의 공개념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와 있음은 분명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주 종 환
<농과대 교수 · 농업경제학>

대학교육기관 전기요금 할인 혜택

'교육용'신설로 연간 4천만원 절감
산업용 기준요금 수준까지 낮춰야

교육기관 전기요금이 업무용 기준요금을 적용, 계산된다면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컴퓨터, 생물배양, 야간학부·대학원 수업 등 한 대학의 전기소모량은 엄청나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고 전기사용의 대부분이 교육을 위해 쓰여지는 대학에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용으로 전기요금이 계산된다면 이는 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커다란 재정적 손실이 된다.

더욱이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가 국가예산의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전기·수도료 등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지출내용에 혜택을 준다면 이는 교육시설 투자의 간접효과를 나타낸다.

92년 2월1일부터 변경·시행된 전기요금내역을 보면 전기요금 내용분류에 '교육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업(1KW당 74.40원) 기준에 의해 계산되던 전기요금이 여름철(6월~8월) 엔 1KW당 71.10원, 9월-5월엔 1KW당 47.40원으로 적용되며 이는 연간 4천만원의 절감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관재과 조성문 전기주임은 밝힌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전기사용내용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매점, 서점 등 복지시설또한 세금면제, 전기료 할인혜택이 학생들에게 값싼 서비스요금으로 환원되고 있어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1KW당 47.00원) 수준까지 낮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변경된 전기요금 기준에 의해 지난 3·4월 월 전기요금은 1천8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백여만원이 준 수준이며 여름철엔 예년과 같은 월 2천3백여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천2백KW 시설용량을 갖춘 본교의 경우 지난해 자주 발생했던 교내 전지역 정전사고는 한건도 없었지만 학생회관 정전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기배선및 시설이 노후한 것이 정전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관재과 한 관계자는 지하사무실및 복지시설에서 절전하고 빈 강의실 등에 불필요한 전등을 끄면 월 2백만원 이상의 전기료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부>

학교채권교부 안내

학교채권을 매입한 학생중 채권증서를 찾아가지 않은 학생은 채권증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받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91학년도, '92학년도 1학기 중 학교채권 매입자
2. 교부장소: (서울)기획조정실 기획과 (전화:260—3019,3020)
(경주)기획홍보과 (전화:2—0131~6)
3.지 참 물:채권매입 영수증, 도장,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학교채권을 매입한 '92학년도 대학원 후기 입학자는 각 대학원 교학과에서 9월말까지 교부하며, 2학기 등록기간중 매입한 학생은 10월중 각 대학 또는 대학원 교학과에서 교부할 예정임.

기획조정실장

취업특강 및 기업체 동문 초청 간담회

취업과에서는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앞두고 기업체의 하반기 채용정보와 업계동향, 면접요령등을 소개하는 '취업특강 및 기업체 동문초청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취업예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1992년 9월 23일(수) 오후 1:30~4:30
장 소 : 동국관 L 301
초청강사 : 장재상(매일경제신문 비지니스센터 실장)
초청동문 : 각 업종별 재직동문 5~6명

학 생 처 장

'92 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 모집인원 : 1학년(○○○○명)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1, 2학년('70. 1. 1~'76. 1. 1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92. 9. 1~10.10(학군단 본부)
· 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신체검사시)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 각1부 ·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 ………… 각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각1부 · 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 각1부 · 사 진(4×5㎝) … 3매

● 선 발 절 차
· 1차: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신체검사, 신원조회
● 합 격 자 발 표 : '93.1.20
● 특 전
· 학군후보생 지원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 희망 및 전공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육 군 본 부

92년 하반기 방송프로그램 안내

"2만 동국인의 소리,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서울:D.U.B.S〉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8:30~9:00	동악의 세아침 —제작부—				
12:00	캠퍼스뉴스				
:15~12:50	민중의 노래 (:20) 박상옥기자 양미옥기자 / 똑 똑 똑 노크하세요 (:30) 김윤희PD 김지혜Ann	목면 칼럼 / D.U.B.S REQUEST 류형근PD 고충남Ann 김수진Ann	알쏭달쏭 김대웅기자 / 백 상 초 대 석 고상숙기자 황정훈eng	소리 스케치 김현주PD 허봉금Ann / 목멱골의 함성 고상숙기자 홍일록기자	목멱 칼럼 / 동국복지현황 최재기기자 / 시사만평 언중유골 서영진PD

동악의 세아침 기술:김진식, 조향주, 권용락, 박수정, 지석헌, 박남기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4:40~5:00	자유소리통 염준성기자 (4:40) / 방송 세미나 김대웅기자 (:50)	동악 대자보 류형근PD 김상균Ann	DUBS기자석	캠퍼스 Network 류형근PD	동악의 현장 제작:보도부
5:00~5:40	문화게시판 류형근PD 김상균Ann / 공간 92 —제작부— 기술:황재준	나도 동국인 서영진PD 김상균Ann / 시사 초점 김희진PD 배경민Ann	클래식의 메아리 서영진PD 김지연Ann	pop—music 나도 한미디 이흥철PD 권유은Ann / 시네마 동국 서영진PD 고충남Ann	우리가락 한마당 신지형PD 박근우Ann

〈경주:D.K.B.S〉

	월	화	수	목	금
8:20	아침의서곡 PD 김병익 ANN김철호	PD 하현아 ANN김청란	PD 정희석 ANN김철호	PD 김병익 ANN최지은	PD 하현아 ANN정재만
8:50	DKBS 캠페인				ANN최 순
12:20	젊은날 젊은시간 PD 김병익 ANN정경은	캠퍼스문화단신 PD 정선영 ANN강호권	백상군 연꽃양 ANN강호권 한정혜	DKBS초대석 PD 임옥경	귀좀빌립니다 PD 정선영 ANN강호권
12:30		그대가 흐르는시간 ANN최 순	5분 칼럼 PD·ANN박준석 / 영상산책 PD 정선영 ANN정경은	동아리를 찾아서 PD 김병익 ANN정경은 강호권	취재의현장
12:50	PD 빈준석 ANN김청란	PD 주은희 ANN김청란	PD 주은희 ANN 김청란	PD 임옥경 ANN최지은	
1:00	함께 부르는 노래				PD 정선영 ANN한정혜
4:40	PD 장진관 ANN김철호	PD 박유선 ANN최지은	PD 박유선 ANN최지은	PD 빈준석 ANN정경음	PD 김장원 ANN김철호
4:45~5:20	음악광장 PD 정희석 ANN정재만	음표와 선율의 만남 PD 하현아 ANN최 순	얼의 한 울타리 PD 정선영 ANN한정혜	문학의 오솔길 PD 정선영 ANN정경은	대한극장 PD 정선영 / 녹이뭔사색 PD 김병익 ANN정재만

'정상적인'사람들과 '미친'사람들의 불협화음

바라볼 수만 없는 우리문화

두번째 원초적본능의 화신은?

최진실과 마이클 더글라스

최진실의 매력의 핵심은 '열받게 하는데, 엇쭈 요게'하면서 두 손을 가슴께로 올려 바르르 떨다가 곧바로 오른손을 들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는 장면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나서 그녀의 팬들은 아마도 이 자그마한 여배우가 '몰라몰라'를 연발하며 가슴에 안겨오는 흐뭇한 장면을 연상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귀여우면서도 어딘가 풍상을 겪은 듯한 흔적이 엿보이며, 그래서인지 남다른 오기를 키워온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오기는 마침내 사랑을 보장받기 위한 유혹의 제스처로 기능할 뿐이다.

'원초적 본능'의 남자 주인공인 마이클 더글라스(형사 닉키)의 호소력 역시 이와 비슷하다. 즉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샤론 스톤(소설가이자 상속녀인 캐더린 트러멜)은 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는데, 철저하게 그녀의 장단에 놀아나는 마이클은 처음에는 약점을 찔린 데 대해서 '열받게 하는데, 엇쭈 요게'하다가 결국은 그녀의 뇌쇄적인 유혹에 의해 '성적(性的)으로' '열받게'된 나머지 그녀의 유혹에 몸을 맡겨 버리게 된다.

마이클은 매력적인 남성이지만 지꾸만 꼬여온 인생역정의 결과, 얼굴 여기저기에 무언가 불부은듯한 정신적인 상흔들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 다소 어리광스럽기한(?) 나른한 꼴통기질을 체질화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의 이러한 체질은 결국 그를 터프한(?) 여성들에 의해 '다소 반항적이면서 대체로 만만한'섹스상대로 선택되게 만들어줄 뿐이다.

자리바꿈에서 오는 '열받음'과 '곱절의' 성욕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최진실이 다소 반항하면서 어떤 터프가이(예컨대 최민수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의 품에 안겼을 때는 모두들 어떤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여자'인 최진실의 행위는 귀여운 '반항'이었다면 '남자'인 마이클 더글라스의 행위는

'본능'의 화신, 샤론 스톤

샤론 스톤의 주변을 메우고 있는것은 충동살인, 동성연애, 가학성 음란증(sadism), 과감한 성적노출, 마약, 여성의 프

◇ 샤론 스톤의 주변을 메우고 있는것은 충동살인, 동성연애, 가학성음란증(sadism), 과감한 성적노출, 마약, 여성의 프리섹스, 폭력 등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금기시되거나 문제시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다.
이는 '정상적인'사람들이 이들 '미친'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압도당하고 농락당하는 자리바꿈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를 영화속에서 실제로 존재시키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러한 '본능'의 화신인 셈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이 영화는 철저한 오락영화다. 다시말해서 이 영화의 감독은 영화를 통해 '본능'을 탐구하고자 하거나 '본능'에 귀기울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능'그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영화속에서의 '본능'의 부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사실인 것이다.

도덕적 족쇄를 벗은 금기들과 메조키즘에 따른 이상성욕

앞서 '본능'이라고 이름붙인 것들에서 그것들을 금기시하는 '도덕적 족쇄'를 제거하면 그 자체로는 야릇한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충동살인은 좀 그렇다 해도 동성연애, 가학성 음란증, 과감한 성적 노출, 여성의 프리섹스, 폭력 등은 누구에게든지 조금씩은 호기심 섞인 흥미를 느끼게 한다. 물론 이것들을 에워싸고 있는 '도덕적 족쇄'를 제거할 수 있으로 드러나지도 않으며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스스로 도덕적 족쇄를 풀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점잖은 여성이 노팬티의 하반신을 남성들에게 뻔뻔스럽게 들이댐으로써 오히려 남성들로 하여금 민망스럽게 눈을 돌리게 한다든지 얌전한 가정주부가 어느날 아무 이유없이 남편과 아이들을 '충동살인'한 뒤 생긋생긋 웃고다닌다든지 하면 말이다. 물론 현실속에서는 '미친 xx'하고 매도당하겠지만, 이 영화속에서는 반대로 '정상적인'사람들이 이들 '미친'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압도당하고 농락당하는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샤론은 마이클을 자기의 페이스로 옥죄어 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암시를 던진다. 당신도 살인 해봤죠? 마약도요? 폭력도요? 기분이 어때요? 알고보면 당신 역시 나하고 다를 바가 없지않아요? 점잔빼는 것 좀 집어치우시죠?

즉 마이클 역시 잠재의식 속에 이러한 '금기'들을 지니고 있으나 그는 여기에 '도덕적 족쇄'를 채우고 있는 반면 샤론은 이러한 '금기'들에게 '도덕적 족쇄'를 제거하고 있는데, 그 결과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금기시된'것이 스스로 도덕적 족쇄를 풀고 나와 여전히 이를 도덕적 족쇄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자들을 압도하고 우롱할 때, 어느덧 마음속에 자기분열을 일으키게 된 후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전자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피학적 음란증(masochism)에 따른 이상성욕(異常性欲)을 유발하여 곱절의 흥분을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100만에 육박하는 우리 영화사상 최대의 관객동원을 기록한 비결이다. 곱씹을수록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강영희 <문화평론가>

도덕적 족쇄 벗은 금기…이상현상 발생
관객노린 감각적 영화, 성·폭력으로 일관

피학적인 '투항'으로 받아들여진다고나 할까. 또한 남성우위의 가부장제 사회질서 속에서 전자가 자연스런 자리매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후자는 어색하기 이를 데 없는 자리바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최진실을 대하는 관객들은 '정상적인'크기의 성욕(?)을 느끼게 된다(여기서의 '성욕'이란 어떤 감정, 자극, 흥미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리섹스, 폭력(그녀의 첫 남편은 권투선수임) 등 우리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금기시되거나 문제시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다. 그녀는 이러한 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뻔뻔스러울 정도의 자신에 넘치는 얼굴로 이러한 세계를 내세운다. 감독인 폴 버호벤은 여기에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심리학자들을 수시로 등장시키면서 이러한 세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흥미들은 결코 노골적

글 싣는 차례

1. 서태지 신드롬
2. 원초적 본능
3. 문화세태의 불교적 고찰
4. 보론—소모임 탐방

달하나 천강에

아내와 여자

조의연 <문과대 영문과 교수>

유명 배우 안성기가 등장하는 모 회사의 커피광고에 다음과 같은 광고문이 등장한다.

"아내는 여자보다 더 아름답다." 이 광고문은 여성을 두가지 얼굴로 치장하고 있다. 아내와 여자. '아내'는 분명 중성도 남자도 아닌 여자라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명제이다. 그럼에도 이 광고문에서는 아내와 여자는 차별화되고 있다. 아내와 여자를 일단 구분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소박한 결론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광고는 현 사회에서 우리는 아내를 여자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V 광고에서 엿볼 수 있듯, '아내'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보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내조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내포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뒷바라지와 남편의 내조에 전력하는 아내의 모습은 전근대적인 여성의 상(像)이며 현대 여성들이 탈피하고자 하는 여성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굳이 이 광고문은 현대사회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여성상을 부각시키며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내의 긍정적인 역할을 이용한 상업주의에서 찾아보자.

남편을 돕는 여성의 모습은 모든 남자가 원하는 바이다. 또한 자기 일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들에게도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는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아내의 역할이 일방적으로만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가당착에 빠진 여성운동가조차 밤 늦게 일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커피한잔 대접하는 아내의 모습을 잘못된 여성의 역할로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광고에서 매부(남편)좋고 누이(아내)좋은 여성의 모습이 부각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아내의 일면은 '아름답다'라는 환호의 수식어로 치장되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아내의 모습을 부정하겠는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남편과 같이 하며 커피를 준비하는 아내'. 이는 커피 소비자로서 남편이나 아내들이 남성과 여성의 위치에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일 진대.

결국 소비자로서, 그리고 광고의 홍보대상으로서 모든 남녀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커피를 마시며 이러한 관계를 연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이 사주(社主)와 광고업자가 노리는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커피가 이러한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가부장시대가 낳은 이른바 일방적으로만 요구된 내조자로서의 아내 역할, 이것이 상품광고에서 교묘히 이용당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싶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아내의 내조자 내지 협력자로서의 모습이 여자와 차별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분명 여자일 뿐이다. 상품광고에서 복고풍으로나 이용되는 긍정적인 아내의 모습이 더 이상 여자와 차별화되지 않는 그 날이 모든 여성들이 참인간으로 존재하는 때일 것이라고 말한다면 과장된 것일까?

우리말 알고 씁시다

김 무 봉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 그가 음식을 날아 왔다.
· 아침부터 까치가 날라 와 울었다.

'날아'는 '날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자동사로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진 말이고, '날라'는 '옮기다'의 의미를 가진 '르' 불규칙 타동사 '나르다'의 활용형이다. 당연히 위의 예는

· 그가 음식을 날라 왔다.
· 아침부터 까치가 날아와 울었다.

로 바로 잡아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성질 등을 서술하는 말인데, 동사·형용사 같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이다.

우리말의 용언은 활용이 활발한 편이다. 활리용이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문장의 성격이나 문법적 관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활용에는 규칙적인 활용과 불규칙적인 활용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 바닥의 물기가 다 날아가 버렸다.
· 학생들이 책을 날라 왔다.

'날아'는 '액체등이 기화하여 사라지다'의 의미를 가진 규칙동사 '날-'의 활용형이다. 이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활용의 규칙성 여부를 생각하면 오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상을 줌.
· 너의 성실 함으로 우리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위의 예는 조사와 어미의 혼동으로 틀리기 쉬운 표현이다. '-므로'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이고, '으로'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그러므로 동사 어간 '되-'의 뒤에는 어미가 와야 하므로 '되므로'가 옳고, '성실함'은 '성실하-'의 명사형이므로 조사 '으로'를 쓰는 것이 옳다.

· '날아'와 '날라'
· '-으로'와 '-므로'

투고를 환영합니다

본사 문화부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진솔한 생활이 담겨져 있는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 소설, 수필, 꽁뜨 등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260-3491 · 2

세계로 품을 펴는 젊음

태양과 고원의 땅 멕시코의 그 뜨거운 열기속에
내 젊은 의지도 뜨겁게 달구어냈습니다.

서 승진 : 90년 7월 독신파견 지역전문가제도로 멕시코에 파견되어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습관 그리고 언어를 약 1년 동안 배우고 돌아왔다. 지금은 삼성전자 컴퓨터부문 PC사업본부에서 중남미지역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독신파견 지역전문가제도

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해 멕시코시티에 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90년 7월이었다.
해발 2240m의 고원위에 세워진채 인디오문화와 혼혈문화라고 불리우는 메스티조문화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가 되어 열기를 발산하고 있는 멕시코—
그곳에는 그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축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벌어지고 있었다.
뜨거운 기후 때문인지, 너무나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인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일을 천천히 즐기며 하려는 멕시코인에게는 축제 즉 파에스타가 생활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의 흥겨운 라틴음악 뒤에는 아즈텍, 마야문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뿌리깊은 자부심, 자존심이 있어 스스로의 생활습관이나 문화양태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면이 있기도 했다.
한가지 예로 우리의 장에 해당하는 떠안게스가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멕시코 전역에서 나흘에 한번씩 열리는데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때는 꼭 지켜야 할 작은 것이 하나있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재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두르거나 재촉을 하면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사고 싶으면 이 시장의 페이스와 룰에 따르라는 식인 것이다.
북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그곳을 통과해내기 위해서는 같은 미주대륙에 속해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와 상거래습관을 형성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지금은 돌아와 중남미지역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인 그 때의 그 경험인 것이다.

삼성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 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사람의 국제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신파견지역 전문가제도—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경험과 지식만을 쌓아 자연스럽게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이 제도에는 매년 400명씩의 3년차 신입사원이 선발되어 독신파견되고 있으며 3년후에는 약 2,000명의 지역전문가가 양성됩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각 단위 특성 맞는 행사기획필요

오늘(16일) 원흥제 필두로 단대 학술제 개막

2학기 학생회 체계를 재정비·강화하기 위한 학술문화제가 오늘(16일) 공과대의 원흥제를 시작으로 각단과대 과별로 진행된다.

하지만 문예를 통한 학생대중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단과대 학술제가 올해 역시 예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매년 각 단과대 학술문화제의 모범적인 상들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행사주체들은 기획자체가 당면 시기의 정세와 요구를 명확한 현실인식속에 담아내지 못하고, 안이한 형식과 구성이 계속 답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오늘(16일)부터 오는 18까지 계속되는 '원흥제'를 비롯 야간강좌의 '남산골 한마당', 불교대의 학술문화제 등 11개 단대 대부분이 백상제전이 열리는 시기(오는 29일부터 30일)에 맞춰 개최된다.

행사개요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막식과 체육대회를 포함 퀴즈대회, 발표회, 영화상영등 8~9가지 정도의 양적으로는 풍부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그러나 몇몇 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행사들이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문화에 대한 소홀과 내용적 측면을 충실히 담보하지 못한 단점들을 다분히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또, 이로 인해 참여 학생과 관람학생들을 2원화시켜 학술제가 단위 학생들의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이런것도 과연 진정한 대학문화의 전형인가 하는 회의를 갖게까지 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전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과나 소모임 차원의 집단적 참여로 대중적참여준비를 도모. △본교와 각 학생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행사를 중점기획하는 외에도 소규모 사업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등의 기획에 있어서의 신중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경주 LAB실개방

경주캠퍼스 외국어교육원은 일반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위해 92학년도 2학기중 Lab실을 개방한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5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Lab C실을 개방하며 프로그램을 보면 △영어는 오디오(New English course), 비디오(Follow me) △중국어는 '송재록 중국어 회화' △일본어는 NHK방송등으로 짜여져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작하여 반복, 신설, 보충할 예정이다.

올 고추 판매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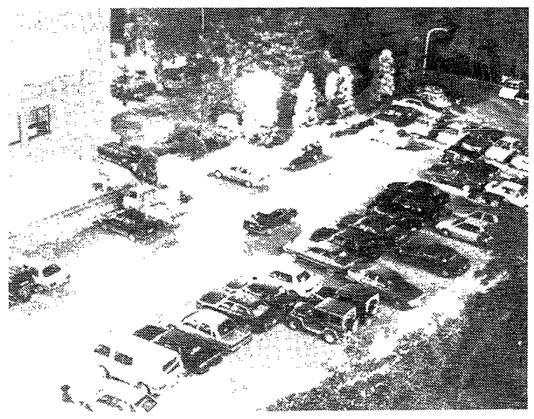
지난 8일까지 실시된 농과대와 제천군농민회 주최의 '92 농민사랑 고추판매'에서 판매된 고추는 총 6천 5백여근으로 집계됐다.

고추판매위원회측은 예년 2만여근이상의 판매량에 크게 못미치는 원인으로 판매시기가 예년에 비해 일렀고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농민회연합 중심으로 본교를 비롯 교대, 고려대등 서울시내 10여개 대학에서 2차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늘부터 교문 출입 차량통제

10부제·자가용 등교자제등 요구돼



◇사진은 지난14일 야간수업으로 인해 차량들이 붐비고 있는 동국관의 야경.

본교 학생처와 총무처 공동으로 오늘(16일)부터 교문을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통제 및 단속을 2학기내 실시하게된다.

이는 현재 본교의 부족한 교정 공간에 반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학생들의 보행시 안전 위협과 주차난, 일반 학생들의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중등을 이유로 지난 1학기에 이어 취해진 조치다.

현재 건축법기준 학내 주차대수는 3백80여대 수준인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관리처에서 파악된 통행차량수는 교직원이 3백45대, 강사 1백10여대나 되며 여기에다 학생차량만 4백대 이상인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오늘부터 시행되는 교문에서의 차량통제로 인해 외부차량은 정문에서 운전면허증 제시와 출입증(주차권)을 교부받아야 하고 출입스티커와 출입증이 없는 일반 학생들의 차량은 출입제지를 받게된다.

또한 강의실주변과 주요 교내 통행로에 협조안내문을 부착 △심야 주차차량의 파손위험으로 심야주차 삼가 △교정 질주금지 △일반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용등교 자제 등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총무처 한 관계자는 "남산내에 위치한 본교는 타 대학과 같은 유료주차장설치, 주차빌딩건립등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한계속에서 교직원들의 10부제 운행과 승용차 함께 타기, 학생들의 자가용등교 자제가 절실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양홍관 동문 불법연행

민동, 항의 방문등 강력대처

안기부의 연일 계속되는 불법연행·감금 사례가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위한 운동권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높은 가운데 본교 양홍관(철학·81학번) 동문이 지난 12일 오후4시경 자신의 집앞에서 안기부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양동문은 지난 88년 2월 '반미청년회'사건으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 90년 당시 민주동문회 사무차장을 지낸바 있다.

이에 민주동문회측은 이번 강제연행이 '민중당대표 김낙중씨 간첩혐의 구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후 양동문의 가족들과 함께 안기부 항의방문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3회 민주동문회원의날 기념식이 오는 13일 오후 5시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도서관 시설 관리 한계노출

조명부실·누수등 학업열의 저하요소 산재

본교 중앙도서관내 시설노후로 인한 학교당국의 시설관리가 한계에 달해 해당부서의 관리소홀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안일한 이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1일 평균이용자수가 4천여명이상인 중앙도서관의 낙후된 시설문제는 실제로 그 이용자수 규모로 볼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

실례로 방학중에 과제도서실 이전후 열람실로 바뀐 제5열람실의 경우 곳곳의 형광등이 한쪽만 켜지거나 아예 수명이 다한 형광등을 방치해둬 학생들의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4층 휴게실의 경우 우천시 빗물이 새어나와 바닥과 의자위가 온통 질퍽거려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환풍기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여름이면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휴게실(4층) 창문밖에 안전시설이 없는데도 창밖 난간에 걸터앉아 쉬는 학생들이 있어 추락사고 위험마저 갖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한 학생은 "가끔 휴게실에 나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나고 더워서 아예 창밖 난간에 나가서 쉬게 된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도서관 열람과와 시설계측은 학교 재정문제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시설계측은 4층 휴게실의 악취에 대해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자판기속의 위생불량과 학생들이 버린 담배꽁초의 담배진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학생복지위원회측은 "관리 자판기는 2주마다 청소가 되고있어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시설의 개보수 및 대책마련에 열람과와 시설계측이 미온적인 태도로 서로 미뤄오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4층에 설치된 복사실 역시 누수로 인해 습기에 민감한 복사기와 복사용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도서관측 한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학생들의 학내 면학을 책임지는 부속기관으로써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중앙 도서관의 낙후는 전동국의 학문적 열의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요소일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본교 도서관 시설 관리상의 문제는 단순히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재원충당과 인력충원계획뿐만이 아닌 장기적 시각의 획기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해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미봉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발전계획 수립으로 시설의 증·개축등의 방도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주 2학기 학생회비 분배안 확정

총학예산 1% 삭감

경주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 정영환·행정4) 중앙위원회는 '92학년도 2학기 예산편성안'을 지난 3일 본의원회 사무실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는 인문대·상경대 ; 법정대의장, 총대의원회의장이 참석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오는 9월말경에 있을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1학기 예산과 비교할때 총학생회가 28%에서 27%로 총대의원회가 3.3%에서 4.2%로 각각 편성됐다.

한편 지난 7일, 8일 양일간 실시된 대의원 추가등록에서 총 1백32명중 1백10명이 등록했다.

각 단대별 접수 상황을 보면 △인문대 48명중 43명 △자연대 31명중 23명 △상경대 29명중 26명 △법정대 12명중 12명 △한의대 6명중 3명 △의대 6명중 3명으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한혜원 사이클 우승

대회신 2관왕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15회 업복동배 전국싸이클경기대회에 참가했던 본교 싸이클부소속 한혜원(일문1)선수가 1㎞독주와 1㎞일제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선수는 1㎞독주에서 1분17초75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종전기록=1분18초102)을 수립하는 기염을 토했다.

석장사지 발굴착수

가람터 파악 주력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김길웅·고미술사학)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석장동 산 82-2번지 '석장사지 2차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86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1차발굴조사에서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청동불상등 2백 50여점의 다양한 유물을 발굴하였으나, 정확한 신라시대 사찰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그 건물터를 찾는데 이번 2차발굴조사의 주안점을 두고있다.

1차발굴의 마무리에 의의를 둔 이번 조사는 고미술사학과 외 3개학과 학생 25명을 발굴인원으로 지난 15일 개토제를 지낸후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1주일에 6명씩, 1차에 5백여평을 발굴, 2차에는 약 3백평을 발굴할 예정인 이번 '발굴조사서'는 2년이내에 나온다고 한다.

한의대 '공보의'시행 촉구 서명

보사부, 오는 20일께 실시여부 밝힐듯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회(회장=김봉수·한의학 2)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제도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본교와 인근대학을 포함한 경주, 울산시내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인근 한국관광대학등 5개대 학생들과 경주·울산 시민들이 참가해 5일간 모두 1만5백여명이 서명했으며 이는 국회청원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한의대 학생회측은 밝혔다.

이 공보의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선 일부재학생들의 병역문제가 현역복무가 아닌 현재양의 공보의와 같은 40개월 일선근무로 대체된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보건소에 한방과를 설치해 공중보건의 제도를 시행할 것을 계속 요청, 강원도 춘천군등 3개 지역에서 90년 3월부터 92년 2월까지 적합여부판별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바 있다.

시범적 운영기간 중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 98%의 주민들이 계속적인 한방진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가 진료결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회장 임종근·대전대)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원주상지대에서 전국 11개학교 한의대학생들의 모임인 '행림제'를 개최 정부의 '공보의'제도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학과소식

〈서울캠퍼스〉

영어영문학과

과 문화행사인 '영상제'를 오늘(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명진관일대와 다향관에서 개최한다.

주요일정은 △16일=풍물패 마당극, 바둑·오목대회 예선 △17일=노래패공연, 심포지움(문학반), 바둑·오목대회결선 △18일='구속동지를 위한 일일찻집'(다향관), 영문인 큰잔치(영어퀴즈대회, 노래한마당등)으로 이뤄진다.

사학과

'한국전쟁'을 주제로 정기고적답사를 전학년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갖는다.

국민윤리학과

'히람제'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명진관과 만해광장등에서 개최한다.

주요일정은 △17일=풍물패 길놀이와 고사, 윤리인 퀴즈대회, 체육대회 △18일=독서토론학술제, '히람'노래자랑 △19일=윤리학도의 밤(다향관 보리수)으로 이어진다.

역사교육과

'역교과 추계답사'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학년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도 일원에서 갖는다.

연극영화학과

오늘(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학년 실습공연 '봄이오면 산에 들에'(작 : 최인훈, 연출 : 장소정)를 연영과 스튜디오에서 공연한다.

회전문

대통령은 못돼

○…이제나 저제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각 요직인사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뿌듯한 기분으로 새벽조깅을 하던 YS, 달리다 개똥을 밟은 셈이 됐는데….

지난달 31일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가 그동안 심중은 가지만 물증이 없었던 (?)관권선거, 관광선거의 의혹을 백일하에 밝힘으로써 오로지 대권을 향해 질주하던 '철혈' YS에게도 시련이 닥칠 모양.

이를 본 한 학우"YS의 구국의 결단이 소시적 야당시절 결단보다는 못할 모양"이라며 비아냥.

꽁초같은 인생

○…온방골 학생회관 휴게실 천장이 재털이로 변하고 있다는데….

흡연을 즐기는 일부 학생들이 담배꽁초 청소로 오뉴월 개구리처럼 뛰어야 하나!"

악법도 법(?)

○…"벗는 영화도 폭력영화도 아니고 뭔가 진지한 구석이 있는 영화 제작은 위법이다"라는 법조항이 있기라도 한건지.

지난 90년 장산곶매가 제작한 '파업전야'전후로 계속적으로 진행된 진보적 영화에 대한 탄압이 제작자들의 구속과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에는 '파업전야'선고공판이 열렸다고, 표현의 자유까지 상실된 현 우리 영화계에 UIP 성폭력 영화가 판을 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듯.

O.M.R 공부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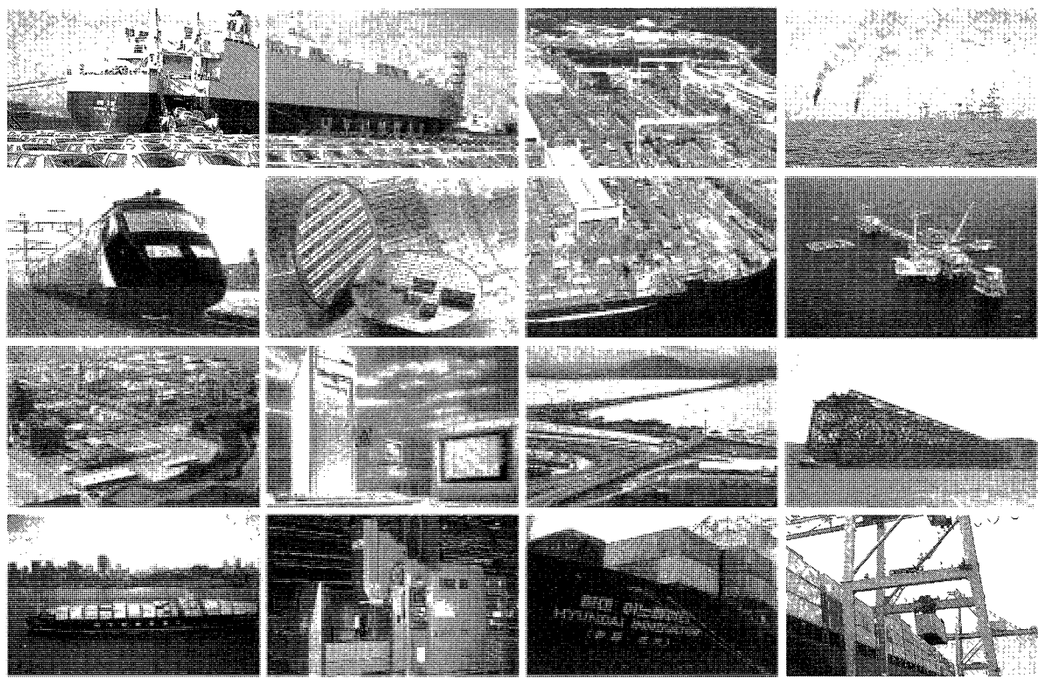
○…수강정정 확인이 끝난 온방골 교무과는 직원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는데.

강의에 무심한건지 수강신청서 검토해보는 시간이 아까웠던건지 수강신청 O.M.R카드를 잘못 적어낸 학생들이 1할대에 이르고 있어 교무과 직원들의 잔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이에 교무과 한 직원 한마디 "소시적부터 객관식보단 주관식에 더 강했던 일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모양이네요."

관권 부정선거 폭로—민자당의 '대선전선'이상있다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금년 外貨획득 목표
120억 달러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운다

수출만이 우리의 살 길 — 現代는 수출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지구촌 곳곳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창조적 의지로
국가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現代
우리 現代는 국가 번영과 국민의 복된 삶을 위하여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우는 경영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現代는 상품과 건설·해운 용역수출로
올해 외화획득 목표 12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現代

중국 문학이 밀려오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대륙에 대한 호기심 발동

대륙의 문학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중국과의 수교와 발맞춰 각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요즘 출판계의 움직임도 바쁘다.

비싼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서야 출간할 수 있는 서방의 작품들과 달리 아직 국제저작권협약(UCC)에 가입되지 않은 중국작가들의 소설은 비싼 대가가 필요없어 불황을 겪어온 우리 출판계로서는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수교 이전에도 '사람아 아사람아'의 다이 호우잉이나 루쉰의 작품들은 이미 서점가의 스테디 셀러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선례가 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독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중국대륙에 대한 호기심도 이들 중국문예물 출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바오미(保密)의 '황화(黃禍)', 곽달의 '황화는 동쪽으로 흐른다', 메제민의 '북대황'등 최근 몇달 만에 10여권이 발행된 사실은 중국소설 출간이 붐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한다.

담담한 수필·소설 많이 읽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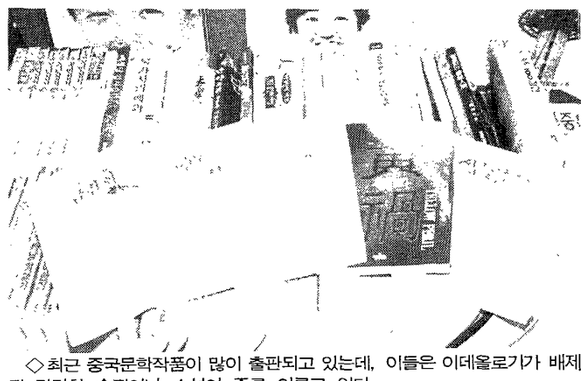
싼 저작권료 노린 상업주의 전략

이들의 특징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예전 다이호우잉등 옛 문화혁명 시절에 지식인들의 애환을 다뤘던 중국내 명망있는 소설가들의 작품보다는 현대의 젊은 작가들의 소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와함께 내용 또한 황화를 비롯한 몇 소설을 제외하고는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담담한 수필형식이나 대중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중국작가들은 자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작가들로서 각국의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미 TV드라마로 방영된



◇최근 중국문학작품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담담한 수필이나 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바 있는 대만 여류 소설가 경요의 애정소설인 '금잔화' '비련초'등도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어 대륙소설 뿐만 아니라 전중국소설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을 듯하다.

특히 영웅출판사가 최근에 5권까지 완간한 '황화'는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등소평 사망후의 중국미래와 내부의 치열한 국내 분쟁으로 인해 벌어질 세계멸망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는 정치소설로 중국내에서는 판금조치를 당했지만 원고가 외국으로 유출돼 그곳의 자본으로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작품성과 내용을 두루 갖췄음에도 몇몇 평론가들은 이러한 중국문학수용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출판된 중국 문학작품들 대부분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담고 있어 주로 서방국가들이나 동남아쪽의 자본주의 메카니즘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독자들에게 사회주의 문학의 단면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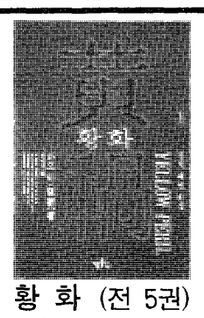
또 이로 인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소재로 한 기존 본토문학들이 수교이후 출판여부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한중수교 이후 호기심어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해 '한밑천 잡겠다'는 상업주의 전략이나, 적은 출판비용의 잇점을 노린 점은 중국문학의 올바른 이해에 무리가 따를 듯 싶다.

과거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수용이 그랬듯이 성급하게 상업주의에 치중한 문화수용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박수로 기자>

화제의 책



황 화 (전 5권)
바오 미 지음
〈영웅출판사 · 각권 4천5백원〉

'황화(黃禍)'는 칭기즈칸의 세계 재패로 아직도 백인종에게는 두려움의 존재로 남아있는 황인종에 대한 인종주의적 감정론이다.

황화론은 1985년경 청·일전쟁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3세가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론됨으로써 새롭게 대두됐다.

빌헬름 3세는이 편지에서 황인종의 융성은 백인 문명에 위협이 될 것이므로 유럽 열강이 단결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황화론이 인류의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은 것이 가상 중국소설 '황화(黃禍)'다.

이미 파격적인 내용과 '비밀을 지키다'라는 뜻의 필명 '바오미(保密)'외에는 신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작가 덕택에 이책은 대만, 홍콩등 동남아와 캐나다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소설은 중국 막후 최고 실력자 등소평의 사망이후 볼어닥치는 제2의 천안문사태, 군부쿠데타, 핵전쟁, 중국인의 해외이민의 물결, 그리고 인류의 멸망까지 센세이셔널하기까지한 내용의 정치예언적 소설이다.

등소평 사망후 정치변화나 대만과의 핵전쟁등 민감한 정치문제를 다뤄 중국당국으로부터 판금 조치가 내려진 이 소설은 몇몇의 지식인들을 통해 지하복사본이나 컴퓨터 디스켓으로 은밀히 읽혀져왔다.

또한 이책에서 작가는 3명이상 9명이하의 사람들이 모인 '기준의 n'을 단위로 조그만 소단위의 작업반에서 반장을 뽑고 이들 대표자가 다시 n의 수로 모여 그 위 단위대표자를 뽑아 국가원수까지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인 '축급체선제'라는 새로운 선거방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상급이 하급을 임명·파면하는 독재사회와는 달리 하급이 상급을 임명·파면하며, 파면당하지 않는한 임기의 제한이 없고 한 인민의 중국미래와 내부의 치열한 국내

세계멸망 경고한 정치소설

분쟁으로 인해 벌어질 세계멸망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는 정치소설로 중국내에서는 판금조치를 당했지만 원고가 외국으로 유출돼 그곳의 자본으로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작품성과 내용을 두루 갖췄음에도 몇몇 평론가들은 이러한 중국문학수용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출판된 중국 문학작품들 대부분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담고 있어 주로 서방국가들이나 동남아쪽의 자본주의 메카니즘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독자들에게 사회주의 문학의 단면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로 인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소재로 한 기존 본토문학들이 수교이후 출판여부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한중수교 이후 호기심어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해 '한밑천 잡겠다'는 상업주의 전략이나, 적은 출판비용의 잇점을 노린 점은 중국문학의 올바른 이해에 무리가 따를 듯 싶다.

과거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수용이 그랬듯이 성급하게 상업주의에 치중한 문화수용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박수로 기자>

영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선원들은 현대판 노예인가?"

"절 좀 살려주시라예. 울 엄마…."

소년은 말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다.

"너 말고 또 있나?"

"예, 사공하고 심복 정씨만 빼놓고는 다 도망가고 싶어한다예."

"알았다. 아무 말 말고 잠시만 있어라."

"아저씨가 널 꼭 데리고 갈께."

—원명희 '먹이사슬'중에서.

어렸을 적 한번쯤은 '마도로스'라는 환상에 젖어본 사람들이 있으리라. 망망대해에서의 고독과 낭만을 떠올리면서…. 그러나 이는 한조각 구름일 뿐.

우리나라 전체 선원을 2만명으로 추정해 볼 때 망망대해의 베 위에서 연간 8백명에 이르는 선원들이 실종되거나 죽어간다고 한다. 선원들의 비일비재한 욕설과 구타, 밧줄에 감겨 죽거나 바다에 빠져 생선회처럼 갈기갈기 찢겨죽는 경우, 닻줄을 끊고 탈출하다 조류에 휘말려 죽는 경우 등 일단 배를 타면 살아서 물에 나오기 힘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원들의 삶을 사실에 기초하여 극적 사건들을 꾸밈없이 담백하게 그려낸 영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가 제작돼 오는 26·27일 양일간 오후 4시, 7시에 한양대 대강당에서 있을 시사회를 남겨두고 있다.

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소개업소를 찾은 주인공 재호는 악덕 소개업자에 의해 일명 멍텅구리배(새우잡이배)를 타게 된다. 그 배에는 오갈데 없는 늙은 천씨, 밥을 짓는 어린 하장, 마도로스를 꿈꾸는 길재, 강도전과자인 정복순 등 다양한 인물들이 목숨을 건 힘든 작업을 한다. 선원들은 각자 탈출계획을 세우는데….

이 영화는 '오, 꿈의 나라'등 한국적 리얼리즘을 추구해온 홍기선 감독의 작품으로 기존의 한국영화가 섹스와 홍미만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밑바닥 인생의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먹이사슬 구조와 같은 사회구조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새우잡이배에서의 바다생활이란 지독한 욕설과 폭력 속에서 하루 18시간, 주 126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휴일도 명절도 없이 계속될 뿐이다.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식사와 관속에서의 새우잠… 이른바 현대판 노예선.

한편 이러한 어선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함께 선원에게만 불리하게 되어있는 '선원법'은 선원들의 가혹한 노예생활을 한층 채찍질한다.

특히 선장의 지휘명령권과 유류품 처리에 대한 조항(제6조, 제18조), 쟁의행위의 제한 및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조항(제27조, 제52조)은 선주나 선장의 횡포를 더욱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에 전국선원피해자협의회와 태평양화학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초에 있을 이 영화의 극장개봉에 앞서 '선원인권과 민주노조를 위한 기금마련 특별시사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젠 더이상 애수에 찬 마도로스를 그리워하기 보다는 밑바닥에서 싸우고 있는 선원들과 함께 해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경애 기자>

문화단신

공연안내

◇윤선애/새벽 콘서트… '그날이 오면' '저 평등의 땅에' '사계'등 그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 널리 알려진 노래들을 만들어 불러왔던 노래 모임 '새벽'이 그간의 공백을 깨고 두번째로 기획한 공연.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새벽이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곡들 김정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신곡들과 과거 새벽이 만들고 불렀던 곡들이다. 초대가수로 권진원, 김광석, 박은옥, 정태춘, 노·찾·사등도 출연한다. 오늘(16일) 부터 10월4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인켈아트홀. 715-0277.

◇세상만사… 극단 '현장'의 열다섯번째 공연으로 하반기에 전개될 노동법 개정과 대선의 내용들을 각계각층의 시각으로 담아 재미있게 표현함.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평일 낮공연 없음). 예술극장 한마당. 762-7320.

알아둡시다 우리의 4대 명절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전체인구의 절반인 2천만명의 민족대이동이 연출됐는데.

세계에서 유독 명절과 조상을 소중히 여겨온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러한 명절들 가운데 중요하게 쳐온 4대명절이 있다.

설날 : 새해 첫날. 마음과 몸을 깨끗이하고 차례를 지내며 한해의 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는 명절.

단오 : 일년 중에서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하다 하여 사내들은 씨름을 즐기고 아낙들은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비녀로 삼아 꽂기도 하였다.

또한 여인네들은 그네를 뛰며 여름의 질병과 더위에 대처하기 위해 모두가 날로 쑥과 익모초를 뜯어 약으로 썼다.

추석 : 수확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햇과일과 함께 제사상에 올리고 성묘를 하는등 수확에 대해 조상에 감사를 한다.

한식 : 위 삼대명절과 함께 사대명절로 치는 24절기상 청명 다음 절기. 음력 2월이므로 계절상 초목이 가장 잘 자라나므로 조상의 산소에 잡초를 깎고 묘소 주위에 나무를 심었다.

또한 이날은 찬밥을 먹는 풍습이 있다.

<문화부>

페이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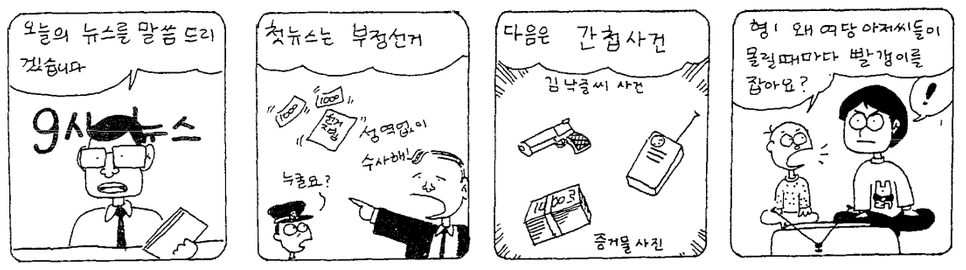
▲8월이라 한가위엔 보름달과 그 이상의 풍요로움을 기원한다. 헤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품안으로 돌아와 한자리에 모여 송편을 빚고,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담소를 나누면서 가족의 안녕과 농사에서의 풍년, 사업에서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것이 우리 한 민족의 정이라면 정이리라.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의 정서일뿐.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차야 할 한가위에 구슬픈 노래가락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무산자 누구나 탄식마라/부귀와 빈천은 돌고 돈다/발 잃고 집 잃은 동무들아/어디로 가야만 좋을까보냐'.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일제시대 서민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신아리랑'의 내용처럼 주인이 주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에선 도시로 떠난 이들의 흔적을 바라본 채 어린이와 노년층이 근근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청운을 안고 도시로 찾아나선 이들은 공장노동자로 출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꿈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의 피와 땀으로 고독과 좌절감과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다. 그리고 40여년동안 고향을 그리워 하면서도 찾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바로 그들이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거론된 지 벌써 몇해가 되어가고 있건만. 이들은 북쪽 하늘만 바라본 채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한가위에도 2천만이라는 민족의 대이동을 경험했지만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민족의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복입은 자태를 뽐내면서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에서 술과 춤으로 조상님들을 모신 것은 아닌지. 연휴내내 담배연기 자욱한 방에서 고스톱에 열중해 있진 않았는지. 한민족의 날, "어머니, 자주·민주·통일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말이 떠오름은 갑작스러움이 아니리라.

〈炅〉

한가위 푸념

영근 열매들이 내팽개쳐지고 있으며, 조만간 수입쌀로 빚어진 송편을 맛보게 될 수도 있겠다. ▲한편 그나마의 한가위도 마음속에만 고히 묻어두는 이들이 있다. 이땅의 민주화를 위한 지난한 투쟁과정중 구속되어 차가운 감방에서, 공장에서 해고되어 거리에서, 수배자로 쫓겨 지하에서 배고픔과 설움과

최 경 인 〈3〉



인간존중의 경영

콧대 높은 뉴욕 보험청도 두손 든 줏대있는 한국인입니다.

脫

固·定·觀·念

외국자본 국내진출의 위기를 우리자본 외국진출의 기회로 역전시켰습니다

럭키금성 기업문화 '脫'시리즈-③
럭키화재 국내최초 미국지사 개설편

금융개방 압력에 맞선 한국 보험업계 최초의 미국 진출— 문단속에 연연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세계의 금융 심장부에 먼저 뛰어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방시대의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틀에박힌 사고를 버리고 개척의 정신으로 뛰는 젊은 인재들— 럭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 속에서 시대의 새로운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업계 최초, 미국지사 개설 실무담당
럭키화재 이종욱 과장 —

"외국자본이 들어온다고 걱정만 해선 됩니까? 우리도 그들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 아닙니까?" 국내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 88년 부터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에서 미국지사 개설이라는 특수임무를 맡고 활동을 해오던 럭키화재 이종욱 과장 -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뉴욕 보험청의 높은 콧대를 꺾고 마침내 현지 지사 개설 라이센스를 따냈을땐 감격스러웠습니다. 문단속에만 연연했던 당시엔 가히 의외의 일격이었거든요" 개방의 압력, 몰려오는 외국기업에 맞서 움츠려들기 보다는 세계시장의 문을 열고 당당히 어깨를 겨누는 이종욱 과장은 도전과 극복의 지혜를 한 발 앞서 실천하는 패기있는 젊은이이다.

럭키금성